아가페

2014년 신년호
제379호

김성국 목사 위임
성탄절
신년하례
제직 수련회

어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시편 107편 1-9절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 같이 말할찌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3.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5.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6.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9.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 가 페

2014년 신년호

이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순서

6 EVERLASTING SPRING COLUMN
장영춘 원로목사

8 믿음생활의 삼대 중심
김성국 담임 목사

12 선교지에서 온 편지1
박수영 캄보디아 선교사

16 선교지에서 온 편지2
김관중 알마티 선교사

19 김성국 목사 위임예배
편집부

32 담임목사 소개

34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반별 사랑의 모임
송정아 집사 / 민서 엄마

35 GOD IS AN AMAZING ARTIST
명샛별 집사 / 지현 엄마

36 한 영혼을 구원할 풍선을 들고
조나영 집사

38 유아부를 통해 저를 변화시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윤혜진 교사

40 HOLYWIN VS HALLOWEEN
이정훈 집사

48 야곱의 꿈에 나온 사닥다리
최지혜 교사

50 하나님께 감사해요
김예은

51 나의 기도
박은도

52 감사해요 주님
이예란 교사

54 어린이들의 문화 미디어
김재형 전도사

57 15년을 초등부 교사로 섬길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최문수 집사

60 THE NIGHT HE CALLED US TO LIFE
Soo Min Kim 학생

62 HOW DEEP IS YOUR THANKS?
David Lee

66 WHAT I AM THANKFUL FOR
David Kim, Hyunsu Jeoung, Clara Jung, Priscillia Kim, Cherry Lau, Dain Kim, Soojin Lee

68 추수 감사절

76 QPEM FALL RETREAT
김도현 목사

82 하늘나라 네 시어머니가 '문자'를 안 받아!
손현숙

84 어미 우렁이
윤원상 전도사

86 찬양의 능력
오인수 전도사

92 복있는 만남
이명옥 전도사

94 가을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
정혜경 권사

97 추운 계절을 잘 이기는 건강 요법
한원희 집사

98 요셉 도서관 신간 안내
김경구 권사

100 새가족 수료 간증1
한학철

102 새가족 수료 간증2
최지현

104 새가족 수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영의 집사

108 사흘만 볼 수 있다면…

111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인생의 7가지 선물

112 성탄절 대영광송 연주를 마치고
유경선 집사

116 은혜를 받은 자여

120 2013 JUNIOR HIGH WINTER RETREAT

125 기도하는 손

126 지키시고, 은혜주시고, 평강주시는 하나님

130 축복이 흐르는 교회

134 축복이 흐르는 제직

140 고등부 추계 부흥회

142 하나님의 은혜
최진식 집사

145 아시나요?

146 우동 한그릇

154 교육부서 소개

주님!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ㅡ장영춘 원로목사

깊어 가는 가을 밤,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온다.

처절한 전화로 인하여 졸지에 부모와 고향을
잃고이 소용돌이치는 지구상에 나 혼자뿐인
인생으로 앞이 안 보이는 미로에서 탄식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세월 고독을 씹으며
외로움을 이기려 친 몸부림이
나의 믿음을 영글게 하는 연단이었기에
감사합니다.

남달리 연약한 몸이기에 내 힘으로는 못 살 줄
알아 전능하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몸부림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Deep deepening autumn night, listening
to the autumn leaves falling as I reminisce on my
past life"Lord, thank you!" This confession
overflows from my heart deep within.

Sudden loss of my parents and hometown
due to a gruesome war I stood all alone on
this whirling earth lamenting in a labyrinth
of blinding grief. Now I realize it was God the
Father's Providence to help me reap the fruits of
thanksgiving Lord! Thank you.

For a long, long time I fought to overcome the
searing loneliness I am thankful that it was a trial
to strengthen my faith. My weak health which
prompted me to think I could not live on my own
strength With the faith of total dependence on the
Almighty God.
I am thankful that I could come thus far.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Holding fast to this Word as I struggled to journey
with the Lord I am thankful that I have come thus
far.

Having nothing, I tightened the waistband around
my starved belly:
Lord! May I not starve but be able to eat and live!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허기진 배를 졸라매고
주님! 나도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다 쓰러지던 젊은 날을 회고하며
오늘 풍성한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씹는 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주님! 더욱 감사 또 감사합니다.

감사!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감사!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의 신앙고백이다.
신앙인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감사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자.
감사하는 자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감사합니다.
그대가 있기에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그것은 아침 첫 마디 기도이어라
감사! 그것은 성도의 하루를 사는 삶의 고백이어라
감사! 그것은 성도의 마지막 찬양이어라

금년 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그것만이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는 비결이다.
주님! 나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소서.

I remember my days of youth when I prayed this prayer and fainted today, whenever I sit before an abundance of food I cry thankful tears for allowing me to relive the meaning of swallowing bread mixed with tears
Lord! I give thanks again and again.

Thanksgiving! It changes the person's life course. For the person standing at the cliff of his life and desiring God. God begins His work.

Thanksgiving! A confession for those who believe in God as their Father.
A believer's life is a life of thanksgiving.
May we like Joseph, Daniel, David,
Be people of miracles who change their life' fate through thanksgiving.
To the one who allows those who are thankful to bear greater fruits of thanksgiving:
God, thank you.

Father and Mother, thank you.
Pastor, Elder, Kwonsanim, Deacon, Deaconness, thank you.
Brother, Sister, thank you.
I am thankful that because of you, I am here.

Thanksgiving! That is the morning's first prayer.
Thanksgiving! That is the confession of a believer's daily life.
Thanksgiving! That is a believer's last praise.

May we recover the lost thanksgiving on this year's Thanksgiving Day.
That is the secret to recovering the lost blessing.

Lord! May my thanksgiving become everyone's thanks

믿음생활의 삼대 중심

—로마서 4:1-16 / 김성국 담임 목사

미국의 저널리스트 매기 잭슨은 그의 책 '집중력의 탄생'에서 오늘의 시대를 집중력 분산의 시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며 사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환경들이 급속도로 사람들을 찾아오기에 사람들의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성도 깊이 있는 삶도 함께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며 집중력의 회복을 기대하였습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에도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다보니 믿음생활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집중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 중심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3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An award-winning columnist and author, Maggie Jackson, wrote in her book, 'Distracted,' that we live an era of distraction. She writes that because of the sudden drastic changes that are occurring in peoples' lives, they lose their ability to concentrate - People lament for the fact that humanity has lost genuine intelligence, as well as their quality of life, and they live in hopes that they would regain their ability to concentrate and live a focused life.

Today's Christians, are also losing their ability to concentrate in their spiritual life. While having to spend their attention on too many things at once, they have lost focus in their spiritual life. There must be a restoration of focused spiritual growth. Today's Scripture teaches us the three most important things in our spiritual life.

1. God-Centered Life The scripture says that Abraham trusted God (v.3), and it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로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것도 증명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36)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하든 모든 인생과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v.3, v9). And in verses 11 to 16, the Scriptures say that Abraham is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Abraham's faith is faith that was approved by God, and so he had become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However, there was nothing in Abraham that could make him righteous. With his own might, he was just a feeble minded man whose faith could be shaken at any moment. The only thing that kept Abraham faithful was the fact that he lived a God-centered life. All those who were considered faithful lived with one thing in common: they lived with total dependence on God. In Romans 11:36, Paul sings in praise,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Whether people realize it or not, history is in the hand of Almighty God. Therefore, believers must live with total dependence on God.

2. 성경 중심

본문에 보니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견해가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일축시키는 한마디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외침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도 "그러나 성경이 무엇

2. Bible-Centered Life In the passage, we can see people who have their own opinion about how one can be saved – by law, circumcision, or by works. However, the question of Scripture dismisses all of these opinions at once. The scripture says, "What does the Scripture say?" (v.3, Gal.4:30) This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concerning salvation. All the believers, in all matters of decision making in life, must first

을 말하느냐"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을 찾아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사색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ask themselves, "But what does the Scriptures say?" And, whatever the Scripture teaches, they must obey it, because the Scripture is not the opinions or thoughts of people, but revelation from God.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성공, 교육, 직업, 사랑, 선교, 등등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 수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며 그 답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Scripture is the Truth. It has all the answer to all the problems of our life. There are many people saying that there are different solutions for many aspects of life, such as marriage, success, education, career, love, and missions. But we must listen to what the Scriptures says about such topics, and then obey it. The believers of the early church lived a Scripture-centered life. We could see the people of the early church meeting daily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Acts 2). The core of their life as a Christian was, "But what does the Scripture say?" We, KAPCQ, as a church expecting to be like the early church in the Book of Acts, must also live a Scripture-oriented life.

사도행전 17장에도 성경에 열심이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생활의 핵심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이었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려는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의 삶도 마땅히 성경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3. 교회 중심

오늘날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비호감을 줍니다. 신자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아낌을

3. Church-centered Life Today, people have a negative impression about the church. Even to believers today, the church is not the place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16)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대한 짙은 애착을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보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라는 표현이나 13절에 "후손"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러 차례 나오는 "상속자" 라는 단어는 모두 세상에서 부름 받은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가까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력이 분산된 시대, 믿음의 생활도 너무 산만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중심해서 살아보십시오.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성경,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삶을 힘 있게 살아가며 큰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they love the most. How about God? How important is the church to God? The Scripture says, "I have chosen and consecrated this temple so that my Name may b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2 Chronicles 7:16) After King Solomon built the temple for God, God said to Solomon that his eyes and heart will always be there. Jesus also mentions his love for the church in the letters He sent to the seven churches in the Book of Revelation - God cares so much for the church. We can see God's love for the church from the Scripture's tendency to not say its message to individuals, but rather to groups, the church. So just as our Lord does, we also must love the church.

Dear people of God, in this distracted world where it is easy to lose our focus on the many aspects in our life, we must live a God-centered, Bible-centered, and Church-centered life. If you do not live this way and put something else at the center of your life, then one day, it all will disappear. But God, the Scriptures, and the Church are eternal. Beginning this New Year, may you receive great blessing as you live with total dependence on God in a God-centered, Bible-centered, and Church-centered life.

1

선교지에서 온 편지

ㅡ박수영 / 캄보디아 선교사

샬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와 성도님들께 함께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 온지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 가운데 너무나 덥고 습한 이 캄보디아에서, 한 아름 싸온 비상약들도 필요 없을 정도로 배탈 한 번, 감기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사역도 하나하나씩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 중순엔, 이양미 전도사님과 함께 단기팀이 방문하여 저희 교회 땅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마을 주변 상점들과, 저희 교회 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팀을 나눠 집집마다 노방전도 하며 마을 주민들과 인사하며 저희를 소개하고, 토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 의료사역, 미용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8월 25일 주일날 저희 땅에서 건축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기공예배를 장영춘 목사님과 사모님, 장봉석, 정성호 장로님들과 단기팀원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드렸고, 이때를 시작

임시 예배처소 공사 모습입니다.

땅전도사와 예배 시작하며 찬양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무더위에도 하루 일당 평균 5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현재 대략 1층의 모습이 나온 건축입니다.

으로 매주 교회 땅에서 오후 2시에 현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이 진행 중 이므로, 임시로 오두막 같은 예배처소를 만들어 건물 완공될 때까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단기팀이 다녀간 이후로 첫 주에 134명이 모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평균 60명이 출석하고 있고, 자전거타고, 걸어서 사방에서 아이들이 오며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캄보디아는 7월부터 10월까지 우기라 일주일에 비가 4번 이상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앞이 안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빗물이 임시 예배처소 안까지 흘러 넘쳐도, 꾸준히 아이들이 오고 있어 가슴 벅찬 감사함으로 신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도 없고, 기타 하나 가지고 예배드리는 상황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도네이션 해주신 선물들, 옷들과 캔디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때에 따라 나눠주기도 하며 예배 때 활용도 하며, 현지 사역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 땅에서 현재까지 공사는 1층이 아닌, 2층으로, 2013년 12월 안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1층에 유치원과 교실들, 2층에 예배당과 오피스로 만들 예정이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공사하고 있는 인부들도 빗물을 받아서 씻고 마시는 실정이기에, 먼저 지하수가 나오는 우물 공사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법인 설립과 비영리 단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이 완공되면 유치원 사역을 시작으로 주중 학교사역을 진행하고, 계속 하고 있는 교회사역, 더 나아가 의료사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년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학교에 가지 않은 많은 친구들도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좋은 현지 스텝들이 구해지고 비영리 단체 및 법인 설립 등 이 나라 법에 따라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더불어 저와 현지에서 함께 사역하는 땅전도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건강하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관중 / 알마티 선교사

미르 밤!(샬롬)

우리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3년 9월 22일 오후 2시에 저희 자교회(알마티퀸즈장로교회)는 21주년 예배를 모교회(뉴욕 퀸즈장로교회)의 알마티선교팀과 현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360여명 참석).

저희 자교회는 1992년 3월 8일(세계 여성의 날)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장영춘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모여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마티퀸즈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11년을 지나 이렇게 21주년을 맞이하는 건강한 청년의 모습을 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기도로 준비하시고 실천해 주신 장영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7명의 선교사(목사)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런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쉬지 않고 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의 매년 자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알마티에 오셔서 선교하여 주신 장미은 사모님과 알마티선교팀께도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섬김과 사랑이 모여서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심장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교회 설립 21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카자흐스탄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자료가 있을 만큼 일찍이 복음이 증거된 곳이지만 징기스칸을 통한 이슬람 세력의 여파로 지금은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믿고 있는 국가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슬람과 관계된 모든 행사가 치러지고 국경일로 정해져 지키고 있습니다.

왜 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지 않고 21주년을 기념하여 드렸느냐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1년 10월 25일자로 새 종교법이 통과되어 '모든 종교단체들은 새롭게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부로 새 종교법에 의해 모든 종교단체의 등록이 취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저희는 교회 등록을 위해 준비하려고 새 종교법이 정한 서류를 요구하였지만 아스타나(새 수도)에서 아직 전달된 준비서류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도 못하고 2012년 8월까지 거의 10개월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종교 허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 활동이 정지되었고 만약 종교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즉시 감금이나 추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감시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이 글을 쓰면서도 약간의 염려는 되지만 주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글을 전합니다. 특히 저희 자교회는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기에 늘 타깃이 되어 여러 조사를 종종 받습니다.)

이렇게 10개월 동안에 목사는 예배 인도와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새 종교법으로 인한 두려움도 한몫 하여 현지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종교법은 현지인 50명 이상의 주민등록증과 자필 사인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작 민족은 공개적으로 전도가 금지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교회 등록을 위한 희생을 기대하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50여명의 교인들이 준비가 되어 등록 신청을 했을 때에 정보기관에서는 그 명단을 통해 일일이 연락하여 자발적 기독교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과 도움이 안 되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저희 자교회에서도 현지 교인들은 40%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 주셨다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저희 자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73명의 일꾼들이 헌신되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상 서류들을 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며 감사한 축복입니까.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다고 하여도 이곳 선교지에서는 현지인 성도 한명, 한 영혼과 비교될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 9월에 등록을 시작하였고 시간이 촉박하여 종교법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9월 30일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문제가 된 것은 모교회의 정관(우스탑)으로 만들어진 자교회의 정관 때문이

었습니다. 뉴욕과 알마티의 종교 상황은 당연히 달랐고 이전까지는 정립되지 못했던 카자흐스탄의 종교법이었기에 지금까지 그런대로 지나왔으나 이젠 새 종교법을 공포한 시점에서는 자국의 잇점을 살린 정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교회에서 만드신 정관이기에 고집 부려 그대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2년 10월 25일이 교회 등록 마감일이기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감 하루 전날인 24일 아침에 변호사에게 연락이 오길 저희 자교회의 등록신청이 아스타나종교국에서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남기고 등록을 거부했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인 결과 정관이 새 종교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미 통과된 다른 장로교회의 정관을 중심으로 정관을 바꾸고 등록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50명 이상의 교인들의 서류와 사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마감 하루 전인 24일 오전 11시가 되었고 저희는 기도하며 70여명의 성도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전했더니 '할렐루야!' 역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셨습니다. 70여명의 성도들은 일터에서 빠져 나와 반나절 만에 등록 서류를 준비한 것입니다.

모든 작업을 끝낸 새벽 3시가 되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등록 마감일인 다음 날(25일)에 서류를 챙겨서 등록 신청을 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현지인 성도들! 그들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2012년 10월 24일의 기적은 눈물과 감사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현지 성도들이 고마운지요. 제가 파송된 11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저와 함께 이 알마티퀸즈장로교회를 지키며 섬겨준 사역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청각장애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두수선과 길거리 청소일로 낮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그들이 가장 큰 자들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새 종법에 의한 기적의 사역은 진행되었고 2012년 11월 5일에 우리 자교회는 카자흐스탄에서 인정하는 교회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3년 1월 10일에 종교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기도와 협력해 주신 모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낸 감동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종교 단체 중에 기독교는 1/3만 남았으며 장로교회는 253개에서 55개만 남음.)

그래서 2012년에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2013년에 21주년 감사 예배를 감격 속

에서 모교회의 알마티선교팀과 성도들과 이웃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작금의 모교회의 일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를 위해 선교팀을 인솔하고 오셔서 사역해 주신 장미은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사모님께서는 선물로 복사기, 프린터기, 서류함-캐비닛, 기념타올 500장, 특별 빵 450개, 사랑 등등을 주셨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알마티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해 주신 5명의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열매로 100여명의 인적 사항을 받았고 지금 그들과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귀한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허락해 주신 장영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등록이 취소된 2011년 10월부터 등록증을 받은 2012년 10월까지 저는 새 종교법에 따라 현지인 성도들을 위한 예배인도와 설교는 할 수 없었지만 한인 성도들을 위한 예배와 설교는 가능했기에 교회 대문을 잠그고 경비를 세워가며 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되어 그 기간 동안에 현실적인 문제로 현지인 성도들은 줄었지만 한인 성도들은 성장하여 지금은 1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지 성도들도 돌아와 130~15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교회는 알마티에서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날 정도로 모두가 하나 되어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교회 건물 보수공사(외벽, 창문 교체-나무 틀에서 샷시로, 등등)와 담장 설치를 위해 빌려준 토지를 회수하는 작업과 도시 가스 설치(가스라인이 없어 허가를 안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성탄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되어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교회는 2008년에 용도 변경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재매입하고 교회 토지를 종교부지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종교활동이 영원토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교회는 이젠 서류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작업을 위해 선교비를 후원해 주신 장영춘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직접 알마티에 오셔서 이 작업을 섬겨주신 임정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현지인 성도들은 7개 구역으로 편성되어 은혜를 나누고 있으며 주일 오후 예배를 구역이 중심이 되어 섬길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성도들은 남성 3개, 여성 4개 구역으로 편성되어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성도 중에 현재 5명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자교회에서는 3년 과정의 성경학교를 3회째 수료를 시켰고 4회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 교회를 기둥 되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건물 보수와 담장 이전과 도시 가스 설치 공사가 끝나면 저희는 식당 건물 건축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인 성도들만 작은 공간에서 교대로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 성도들은 이렇게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빵과 차(티)로만 간단하게 마당에서요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앞으로 식당 건물을 건축하여 현지인 성도들이 교회에서라도 정성어린 따뜻한 국과 밥으로 한 끼의 식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꼭 소원을 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아가페를 통해서 선교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자주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핑계로 말씀드리면 이곳은 아직도 상식으로 가늠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법이 해마다 바뀌어서 15년차 선교사인 저도 멍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종교 허가증을 1년마다 재발급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이지 검사도 많이 나오고 때론 소방법 위반, 위생법 위반, 설치법 위반...등으로 재판소에 불려가 재판과 벌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소식을 전할 때마다 조심스러워 주의하고 있습니다. 잦은 소식이 없더라고 용서해 주시고 계속된 기도와 사랑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5살, 7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떠났는데 벌써 둘째 아들이 9월에 대학교(카작, 키멥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둘째가 대학에 입학을 하는 바람에 둘 다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없어서 한국 군대에 입대를 권했더니 순종하여 10월 28일에 논산으로 입대를 합니다. 2년 복부라 제대하고 오면 그땐 둘째를 군대에 보내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이기에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건강하게 입대하고 군대에서도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모교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이신 장영춘 목사님, 그리고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자상하신 어머니이신 장미은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자교회인"알마티퀸즈장로교회"는 21주년의 선교 역사를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알마티로오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2013년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에
알마티에서 김관중 선교사(이재의. 김선호. 김선웅)가 올립니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ㅡ편집부

감사의 달 11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며 감사를 되새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금년에는 더욱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교회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김성국 목사님의 제 3대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11월17일(주일) 오후 5시에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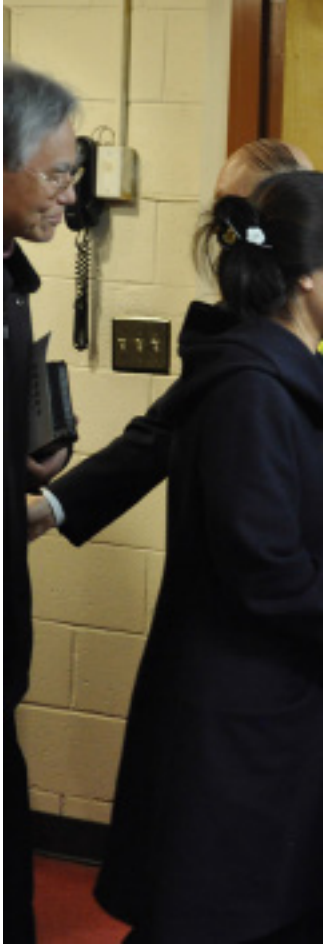
축복의 비가 내리는 주일 오후, 진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여러 성도들의 축하 속에 위임국장 허윤준 목사님의 사회로 시작되어 1부 예배 에서 "영광의 직분"(엡 4:7-12)이라는 제목으로 장영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위에 교회를 세워 주셨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귀한 교회를 관리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를 세우셨으므로 목사의 직분은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직책이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말씀의 사역자로 택하신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의 사람인 김성국 목사님을 우리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 주셨으므로 우리의 기도

가 응답된 기쁜 날이며, 이런 목사님을 모시게 된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이고, 우리 위해 오신 김 목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하고 함께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자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글로리아선교중창단의 힘찬 찬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울려 퍼진 후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위임 예식 시간에는 위임목사 서약과 교인 서약, 위임기도와 공포에 이어 노회장의 위임패 증정이 있었으며, 이규본 목사님의 위임목사에게 주시는 권면- 진리의 말씀을 잘 캐내어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원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주시는 권면- 장 목사님께 순종한 것 같이 새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도우며, 충성스럽고 귀한 일군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부축하와 감사 시간에는 김혜천 목사님의 축사(뉴욕을 대표하는 퀸즈장로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는 것, 좋은 멘토를 모시고 목회 하는 것, 좋은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을 축하드리며, 또한 좋은 인격을 갖춘 겸손한 목사님을 모시는 성도들에게도 축하를 드리고, 목사님의 헌



신과 눈물로 함께 은혜의 샘이 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말씀)가 있으신 후 찬양대의 감격어린 축가 '축복'으로 목사님을 축복해 드렸으며, 이어서 장영춘 목사님께서 김성국 목사님께 교회의 열쇠를 증정해 주셨고 축하 꽃다발을 받으신 후에 김 목사님께서 답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장 목사님과 당회에,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찬양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혜천교회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하셨고, 새로 걷게 된 이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힘들고 험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을 믿으며, 지난 4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40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특별히 학생들과 젊은이들, 영어예배 회중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힘껏 도울 것이며, 장 목사님을 존경하며 아름답게 동행할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사를 해주셨습니다. 강혜영 집사의 특송 '주님과 함께'에 이어 광고와 찬송 후에 손한권 목사님의 축도로 김성국 목사님 위임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성국 목사님은 총신대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도미 하신 후 우리 교회에서 약 7년간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Gorden Conwell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귀국하시어 혜천대학교 교수 및 교목실장, 혜천대학교회 담임 목사로 8년간 역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새로이 펼쳐질 우리 교회의 아름답고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성국 목

장로회 뉴욕노회 주관
자 위임예배
일) 오후 5시 | 장소 퀸즈장로교회

로회 신학교 이사장 이용걸
담임목사 위임예배
회 성도일동

김성국 목사 위임예배

김성국목사 소개

학력

· 총신대학교 (B. A.)

· 총신대 신학대학원 (M. Div.)

·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Th. M.)

·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D. Min.)

경력

· 창신교회 교육전도사 역임

· 서울남교회 부목사 역임

· 뉴욕산정현교회 부목사 역임

· 보스턴장로교회 협동목사 역임

· 퀸즈장로교회 부목사 역임

· 혜천대학교 교수 및 교목실장 역임

· 혜천대학교회 담임목사 역임

· 현)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가족

· 부인 김명자 사모

· 장남 김장현목사
(GORDON COLLEGE /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M. DIV., TH. M. 졸업
/ 현재 산호세임마누엘장로교회 부교역자)

· 자부 김니나

· 차남 김준현전도사
(WHEATON COLLEGE /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재학
/ 현재 보스톤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

비전: 축복이 흐르는 교회

· 하나님과 친밀감 유지 및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선포
· 퀸즈장로교회 영적 유업들의 발전적 계승
· 현재와 미래에 적용될 심화된 성경적 양육 체계 구축
· 이민 1세대와 아름다운 동행
· 이민 다음세대를 위한 제자도 및 성경적 리더십 훈련
· 영어권과 한어권의 일치 속에 다양성 추구
· 다민족 수용 및 열방 선교
· 탁월한 기독교 문화 창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반별 사랑의 모임

ㅡ송정아 집사 / 민서 엄마

7월 토요일 늦은 오후, 소망 3반 반별 사랑의 모임이 영아부 교실에서 있었습니다.

주일 12시면 어김없이 찾던 영아부 교실에서 이명옥전도사님, 조경옥권사님, 김미정선생님과 옹기종기 둘러앉아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은 아기말로 서로 인사한 후 교실을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도 하고, 선생님이 주시는 수박을 받아먹으면서 아기 친구들과 경쟁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은 예쁜 색깔 책을 보여 주시며 아기와 놀며 지도하는 법을 엄마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엄마, 아빠들은 영아부 예배 때면 늘 만나던 분들이지만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없었기에 더 새롭고 반갑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와 함께였던 엄마부터 영아부에 초대되어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엄마까지 그 믿음의 시기와 계기는 다르지만 우리 아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각 가정의 바쁜 일정 때문에 모든 아기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민서와 곧 한국으로의 여행을 앞둔 사랑 2반 친구였던 하랑이, 이번 모임을 통해 친구가 된 혜은이, 마침 그날 돌잔치를 치루고 지친 와중에도 참석해 준 은준이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새롭게 반이 편성되어 조금은 서먹할 수도 있는 아기들과 엄마, 아빠, 선생님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GOD IS AN AMAZING ARTIST

ㅡ명샛별 집사 / 지현 엄마

"You alone are the LORD. You have made the heavens, The heaven of heavens with all their host, The earth and all that is on it, The seas and all that is in them. You give life to all of them And the heavenly host bows down before You." Nehemiah 9:6

For our 소망1반 Class trip, we went to the Long Island Aquarium. The aquarium was the perfect place to see God's wondrous creations. The multitude of various sea creatures is amazing in and of itself, but watching the children get excited about them was truly heartwarming. At the aquarium, we saw amazingly beautiful fish in all different colors. The clown fish and the angel fish were especially exciting for the children, for they recognized them from "Finding Nemo." It is not every day where you can see some of your favorite cartoon characters in reality so up close and personal. However, the fish that truly captured our attention was the lionfish. The lionfish is not the most beautiful creature in conventional terms. From the front, the lionfish has a grumpy frown on its face and its body has many spindles. However, when you take a closer look, you can see that they actually have seemingly perfect and very precise brown and white stripes spanning their entire body. One can't help but to realize that God is an amazing artist.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and glorious.

Just as God has made each fish unique and beautiful, by His grace alone, He has also made each child unique and beautiful. When I was pregnant with my older son, Eric, I used to pray that God would give him straight hair because I suffered with curly, kinky hair all my life. And, since the day he was born, Eric had stick straight hair that come down like needles. I found that it was surprisingly very hard to manage. So, when I was pregnant with my second son, Jonathan, I asked God to make Jonathan's hair the way He saw fit, and God gave him a full set of hair with just enough curl. Who was I to think what was best in the presence of the omniscient and sovereign king?

God alon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He has created everything in them. He has made each and every living creature beautiful and perfect. I thank the LORD for allowing me to be a witness of this every day as I see my two boys grow in His presence and love.

한 영혼을 구원할 풍선을 들고

ㅡ조나영 집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복음의 빚진 자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 영아부에서 '아가양 축제'를 준비하며 영아부 아가들을 찾아나서는 노방 전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있던 저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으로 영적인 비젼의 눈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명옥전도사님과 조경옥권사님, 몇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신속하게 주의 말씀이 효과 있게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하며 노방 전도에 나섰습니다. 영아부 소식지 '걸음마'와 초청장을 정성껏 예쁜 봉투에 담고, 색색의 고운 빛 풍선을 준비하여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식품점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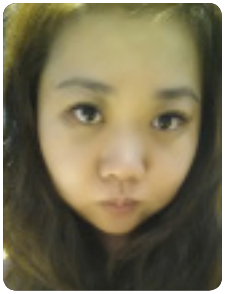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조바심은 풍선에 바람을 넣어 준비하는 도중에 하늘로 다 날아가고 '한 영혼을 구원 할 풍선'을 하나씩 준비하며 오가는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복음은 타협이 아니라 전달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되신 영광스런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달려가 전하며 두 눈을 마주치며 복음을 전할 때 감격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특별히 아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에게 먼저 눈이 가고 아가들의 손에 예쁜 풍선을 들려주며 아가들의 소식지 '걸음마'를 나눠 주며 영아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함께 노방 전도의 기쁨의 길에 오른 전명숙, 정혜정선생님과도 서로 복음 전함과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시간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 마음은 있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정말 누군가가 이끌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유아부를 통해 저를 변화 시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윤혜진 교사

너무너무도 가고 싶었던 유아부에 청년부 예배가 바뀌고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 갔을 때는 아이들과 친하지도 않고 교사가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했지만 매주 가면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에게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면 예수님이 하신말씀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면서 나도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구나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많이 배우곤 합니다.

올해 처음 반을 맡았을 때 청년부에서 리더로 봉사했던 거 보다 더 부담이 크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을 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과연 애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매주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를 준비하고 걱정도 했지만 아이들을 만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자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아이들은 언제나 저에게 더 큰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주는지 유아부에 가는 것이 항상 즐겁고 또 매주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유아부로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힐링되고 또 많이 배우고 회개하게 됩니다. 유아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칠 때 나도 하면 안 되는데 나부터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내가 더 바로 서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 곤합니다.

아이들처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주님에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교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유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유아부를 통해 저를 변화시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처음 교사를 해보면서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대단하고 또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 유아부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olyWin vs Halloween

—이정훈 집사

Halloween: 할로윈(Halloween)의 어원은 카톨릭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카톨릭이 기념하는 성인의 날(All Hallows Day)인 11월 1일은 모든 성인들을 기리며 종교적 행사를 갖는 카톨릭의 전통적인 기념일인데 이 날을 기념하는 전야제(All Hallows Eve)가 오랜 세월 변화하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할로윈의 어원상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원 전 5세기경 켈트족이 거주하던 지금의 아일랜드 지방과 북부 유럽의 지역은 겨울이 길어 10월 31일을 여름의 마지막으로 보고 11월 1일을 새로운 해의 첫날로 기념했다고 하며 수확의 계절이 끝나고 어둡고 추운 겨울이 시작 되는 이 10월 31일을 당시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불분명해 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때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 농사를 망치게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몸을 빌려 거처를 마련한다고 믿었던 그들은 이 날 육체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난방을 중단하고 몸을 차갑게 해서 혼령으로부터 몸을 보호했으며 더 나아가 귀신처럼 분장을 하고 시끄럽게 마을을 돌아다님으로써 기거할 육체를 찾아 헤매는 혼령들을 놀래 달아나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혼령에게 몸을 점령당했다고 생각 되는 사람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화형에 처하여 귀신이 산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 주

기도 했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회자됩니다. 이 풍습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변해 귀신이 몸에 들어온다는 의식은 약해지고 도깨비, 귀신, 마녀와 같은 복장을 하고 모이는 축제 형식으로 발전 되었으며 이민자들에 의해 북미로 전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세속의 축제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미신적, 야만적 풍습에 더하여 Business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기념일과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각 업계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지극히 세속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Halloween을 앞둔 10월 초순부터 이미 각종 미디어와 각 Business업계가 분위기를 띄우고, 이와 같은 분위기에 익숙해진 수많은 미국인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이 Halloween의 분위기에 자연스레 동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레 Halloween을 위한 각종 Costume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고, 학교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Halloween festival을 통해 이러한 사탄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퀸즈장로교회가 지난 몇 해간 진행해 온 'HolyWin Festival'은 이와 같은 사탄의 영적 세속화 노력에 대한 우리 교회의 Reaction입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의 세속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만은 달라야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탄의 악마 숭배주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건전하고 기독교적인 행사로 이와 같은 세속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가 진행해 온 HolyWin의 concept은 비교적 소극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Hal-

loween의 풍속에 동화되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와 사탄의 계교에 말려드는, 선악의 구분조차 힘든 어린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세속의 풍속이 악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에 그 주안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Halloween의 밤을 길거리에서 "Trick-or-Treat'을 외치는 것이 아닌,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대신하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말 우리 교회가 설립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한 2013 HolyWin Festival은 그 동안의 Concept에서 나아가, 더욱 적극적이고 대규모적인 형태로 Halloween의 세속 문화에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선포한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제와 예배,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 진행된 본 행사는 어찌 보면 향후 우리가 지향하고 연구해야 할 새로운 Concept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지향한 것, 또한 열매 맺게 된 사항들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 Halloween의 문화에 대항할 기독교 문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이와 같은 event를 기독교 문화의 한 장르로 만드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이면 힘이 배가되고, 이를 통해 이미 수백 년간 뿌리 내려온 이와 같은 사탄 숭배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뒤엎으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 발걸음을 퀸즈장로교회가 내 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Community Outreach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거주중인 이웃들의 얼굴 한 번 보기가 힘이 들고, 주일 혹은 교회 행사시마다 우리 이웃들에게 알게 모르게 끼치는 실례를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 교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많은 교우들이 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HolyWin Festival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정식으로 발송한 Invitation Card를 받은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즐기고, 음식을 나누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찬양했던 좋은 기억, 우리에게나 우리 이웃들에게나 오랫동안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사 중간에 드려진 예배시 모였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했던 예배였지만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린 조성윤 목사님의 'Harry Potter' concept의 말씀이 자칫 문화적으로 이질적이기 쉬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데 주효했다고 봅니다. 이번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이와 같은 행사를 위한 다양한 contents 개발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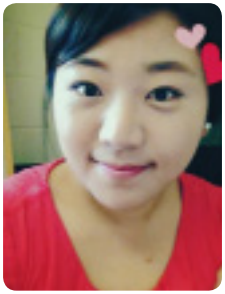
연구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경배드릴수도 있고, 기도드림으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바로 세속에 문화를 이겨내려는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노력을 통해 세속의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 어쩌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지 모릅니다. HolyWin - '성스러움'이 '악함'을 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사역의 시작입니다.

FOR YOUR

야곱의 꿈에 나온 사닥다리

ㅡ최지혜 교사 / 유년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창세기28:12>

유년부 김재형전도사님의 이번 주 말씀 중 본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났을 때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그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펼쳐져있음을...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을 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귀여운 하나님의 사자와 큰 사다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졌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 새로운 충격과 감격으로 다가오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꿈을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세기 28:17>

하늘 문이 열리고 땅까지 이어진 꿈에 보았던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생각하니... 영광스러움의 극치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옵니다.

"또가라사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하늘이열리고하나님의사자들이인자위에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1>

사랑하는 내 주님,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 사랑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하늘과 땅, 극과 극, 아주 멀고 닿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 영광, 하늘에 절대로 이를 수 없는 낮고 낮은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가슴에 먹먹하니 통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운이 길게 깊고 진하게 오래 갑니다. 그 마음의 여운이, 그 향기가 평생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 주를 위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큰 능력... 능력의 본체...

삶의 의미와 이유되시는 예수님...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3,14>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I love my Lord and praise my Lord, my God!!!

하나님께 감사해요

—유년부 김예은

안녕하세요. 전 올해 8살 이구요. 이름은 김예은입니다. 퀸즈장로교회 유년부 학생이예요.

작년에 엄마따라 아빠랑 미국에 왔어요. 주일에 처음 퀸즈장로교회에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서먹서먹했어요. 그러나 유년부 선생님들이 참 잘 대해주시고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영어도 모르는 저에게 미국 생활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신나는 한 가지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되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예쁜 목소리도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해피해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또한 아빠랑 엄마랑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 이제 열심히 공부하여서 멋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제 이름처럼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 원해요. 모두 힘든 외국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길 기도해요

파이팅!

나의 기도

—유년부 박은도

Dear God,

Thank you for our church. Thank you for my family and for my new friends. I love your heart with my heart. I know that you are the real God. I know that your Son, Jesus, is God. While I still live, I will never forget you because you always stand by me. My heart will never fail when I pray in your name. You are great and loving to me. The world needs to know that you are the real God and about your Son, Jesus. I love you.

Love,

Emanuel Park

사랑의 하나님

우리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족과 새 친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마음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진짜 하나님이심도 알아요.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옆에 항상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에 제 맘이 흔들리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꼭 알아야 되요. 하나님 사랑해요.

Love,

박은도 드림

감사해요 주님

—이예란 교사

저는 퀸즈장로교회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예란입니다. 어느덧 유년부에 온지도 일 년 넘었네요.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율동을 잘하거나 목소리가 이쁜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작년 가을에 유년부에 오게 되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하나님의 유년부에 불러주셔서 마냥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처음에 유년부에 왔을 때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고민 되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보고 배우고 받은 것이 더 많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유년부의 주보 만드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주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년부의 소식, 어린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소식과 광고를 주고받는 것으로 세심함이 아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만들면서 조금만 주의하지 않아도 틀리기가 쉽고 섬세함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보 만드는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꼼꼼하지 못한 성격을 개선하여 주어 감사했습니다.

다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유년부의 율동과 찬양을 맡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율동하기가 부끄럽고 쑥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꾸밈없이 온맘다해 신나게 즐겁게 율동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

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저도 매주 하나님께 즐겁게 뛰놀면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율동하며 찬양합니다.

이번 새로운 학기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소중한 반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한명한명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이에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이 부담되고 어렵지만 예전보다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년부에서 소중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말씀 전하려고 매주 애쓰는 전도사님,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본이 되어 주시는 부장집사님, 매주 어린이들에게 온 마음 다해 찬양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서기선생님들, 아이디어가 뛰어나신 선생님, 손재주가 많은 선생님, 일주일동안 열심히 공과준비하시는 선생님... 유년부 선생님 한분마다 탤런트와 장점이 넘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유년부에서 봉사한 지난 일 년 동안 저는 하나님과 더 깊게 지내고 성장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원하건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와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의 문화와 미디어

— 김재형 전도사

안녕하세요. 김재형전도사입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살펴 보면서 생각되는 점들 중에 어린이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화와 미디어에 대해 나누면서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로 'Despicable Me 2' 나 'Monsters University' 같은 영화들을 볼 때에 또 다른 영화들을 볼 때에, 그 공통점은 자극을 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Minion이나 Monster같은 미지의 흥미로운 생물체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매초마다 쉬지 않고, 시각, 청각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울게 만드는 자극적인 장면들 감동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악" "윽" "왝" 같은 소리들, 전기 충격에 부르르 떨거나, "쿵"하고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장면들이 순간순간을 채우고 있고, 여러 가지 장소와 기물들이 다 망가지거나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장면들, 깜작 놀라는 장면들, 무엇인가 멋있거나, 말도 안 되는 쓰레기통 같은 물체들, 혹은 정말 신기한 기구들을 타고 다니거나 본이 아니게 끌려가는 장면들이 너무 폭력적이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자극적이게 중간 중간마다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가족의 중요성, 우정,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적인 노력들은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부분들과 자극적인 부분들을 자극적이지 않게 처리해서(심하게 때린다거나, 총을 맞아 죽어야 될 장면이 죽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는 장면들) 그것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러한 감정과 자극들을 잘 처리하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여과해 낼만 한 완전한 능력이 없습니다. (충분한 것으로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쉽게 Boring 이라고 말하거나, 놀 때에 주로 사람을 때리고 싸우는 것들을 좋아하는 모습들 우리는 언제나 주위에서 쉽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주위에 있는 영화나 게임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들은, “그냥 장난인데요.” “그냥 게임인데요.” 라고만 말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등급이 PG(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등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Monsters University는 PG보다 한 단계 낮은 G이고 이것은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PG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G까지도 부모님께서도 내용을 다 숙지하고 보여줄지 말지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만 되도 더 무섭고 잔인한 영화들에 쉽게 노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하기 위한 Baby sitter 용으로 영화가 여과 없이, 부모님의 지도 없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부모님께서 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주위 분들이 선물로 사주시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gift 카드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게임들과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무엇을 다운로드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플리케이션 gift card는 안 사 주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GTA (GRAND THEFT AUTO)라는 게임은 그 게임 설명이 17세 이상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폭력적인 게임입니다. 자신이 범죄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껏 차를 빼앗고 길거리의 사람들을 때려눕히고 죽이고, 총을 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그런 게임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얻었냐고 물어보면 iTunes gift card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컴퓨터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사용도 부모님의 지도와 관심이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저는 아이를 키우는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며, 그냥 부모님들만 봐도 존경스럽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역을 매일 매일 감당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5년을 초등부 교사로 섬길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ㅡ최문수 집사 / 초등부 교사

승표가 4학년 때부터 초등부에서 교사의 직분을 맡고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말로 소중하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우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참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는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는가? 때로는 바쁘다며 아이들에게 소홀이한적도 있었지만 그때의 친구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걸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일중 하나를 소개 하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은혜가 넘치는 지를요. 제가 매주 초등부 예배때 부르는 찬양을 facebook 페이지에 (초등부-kapcq junior, 2011년에 페이지 등록)올리고 있습니다. 초등부 캠프나 각종 행사 때마다 캠코더를 들고 촬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처음으로 아이폰을 갖게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아이폰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5분 정도면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주도 안 빠지며 올리고 있는데 요즘은 매주 약300명이 그 주의 찬양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인 선생님이 항상 우리 아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 이지요. 지금은 카메라를 들이대면 대부분 아이들이 싫어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초등부 에서 찬양 했던 그들의 어릴 적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본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고 재미있을까를 생각하면 보람된 일이라고도 생각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 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 빚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할 진데 나 자신은 얼마나 교만 속에서 살아왔는가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어쩌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만 하며 지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이 유용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시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지만 나 자신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을 해봅니다.

초등부에서 헌신하면서 제 자신이 받은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해 항상 성경공부를 준비 하다 보니 말씀이 늘 떠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니 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새벽기도를 시작하여 왔지만 이것이 다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과 초등부의 헌신을 위해 기도 하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예

수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에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이나 명예를 바라보았다면 실망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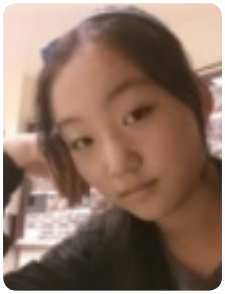
하박국 2장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나에게는 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

지친 이민생활에 고달프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승표가 명문 사립학교를 나오고 아이비리그에 조기 합격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보스톤에서 의대를 다니게 해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을 말입니다. 유라도 오빠를 따라서 같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깨 닳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Financial aid를 받고 학교를 잘 다니게 해 주심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 입니다.

무엇보다도 승표와 유라가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하며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고 있기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립학교와 의과대학에 질문이 있으시면 초등부에 오셔서 저를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림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The Night He Called Us to Life

—Soo Min Kim



A one-night revival: was it reasonable? I wasn't sure if I felt that I could do this properly. I got the news from my pastor about a month and a half before the day of the revival. We did prepare, of course - however, I had a barricade of emotional conflict pulling me away from the Gospel and my duty as the leader of the praise team. I felt that nothing was enough to satisfy me; my faith, the practices, the praise - all of these seemed futile to me. We had complaints towards others, and the term "team" seemed to fade away in the veil of doubt. I got upset, and felt frustrated many times. Due to my overly timid personality, I always felt that I was not fit for the position I honorably obtained. I am not a gregarious person and always felt self conscious - vocal or instrumentally - and the devil seemed to prevail in grabbing me and shutting me inside the phase of depression.

However, He called me and restored my soul.

As I was becoming eager to handle the praise with joviality, the night ripened with genuine worshippers. I felt extremely gracious of

the fact that even though it was my first time leading the praise in this kind of grand occasion, I was able to stand in front of the people to represent the ministry. We did not grow tedious even though it was a long night. I yelled out words of praise inadvertently. I led the praise with potent mind and voice. God had called us to life - He had made his words irresistible and so full of His love! From the audience, I spotted arms high up in the air as if they longed to touch the Lord. Their eyes were closed as if to pry themselves out of their conflicts and only look to Him with their sincere hearts. The moment of praise was only for the Lord; forever He is in the highest! May God guide me my future steps one by one so that I remain faithful to Him and my family in Christ.

How deep is your thanks?

—David Lee

Thanksgiving. For us, it's the time of year reminding us to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for all the times we haven't. Yeah, I guess we can do that while we eat our turkeys and pies, but remember to do so if you haven't already done so this particular moment.

Throughout time around the world, God commanded us to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n many prayers, in words and in thoughts, we have. But there are those few times we just could not give Him what He asked for. Things of the world; self-pleasure, worries, anxiety and anger can blind us from doing so. In my short life, I never gave true thanks until now and it was mainly for two reasons. Perhaps more authentic thanks will come in the future as I grow into the Gospel, but not now. I cannot thank yet for the general things like the house I live in or the church I go to. It just doesn't strike deep in my heart. But I will try my best to never take those things for granted. If we have more, we should freely give and if we are hurt we should absorb instead of spreading.

The only two reasons I honestly give thanks with all my heart is that God showed His grace to me, and because I fear Him. I see us as baby children in our Father's arms no matter how much we grow.

I would rather learn to appreciate these two first so that my foundation of giving thanks can start from God's grace than anything else - not my

father, mother, family, friends or possessions. I'm very proud and happy that who we entrust in is the One and Only, that I wasn't born as a lost child. He spoke, "For everyone who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So we must give Him thanks for what we have.

Since I'm being honest, here's a short story. There was a time when I was speaking carelessly and spoke badly about a JDSN (not this church!). I'll just say I experienced a sickness I never had and an image popped up right before bed that evening after I had spoke those careless words. At once I went on my knees and asked God for forgiveness to not speak of someone so carelessly. Never in my life will I ever judge one of God's men under authority.

Giving me fear of Him is a fine thing. It will keep me from hindering my relationship with Him. And to work without being physically ill is another reason that I can give thanks. To be paralyzed or to be lame is an unthinkable event that can happen in anyone's life. It's wonderful that I can give the first genuine thanks of my life for these few reasons.

Now let's talk about our church. Every Sunday is busy because everyone participates. Sometimes it feels like Sunday isn't a rest day at all! Monday to Friday you may have school or work. Saturday? Probably meeting some people (which requires energy). Sunday for rest? You may have to stay at church helping or catching up work of the church from the week. So it is our duty to say thank you to one another. When a compliment comes from someone else, it boosts you through a simple sentence. And if you're tired of working at church, at least try figuring out why you were helping. The reasons you do it will affect how you view your Christian life.

Right now, I am happy to work with the YNB children. The promise came

from Cambodia with the YNB JDSN that I would. This was actually the second time I came back to God since I was a boy. So I thought it was a duty as a Christian. But as our QPEM Pastor told us, it's genuine faith first and then having a heart to serve so that you may do the good wills of our Father in Heaven. He stressed tha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However, I also feel that everyone needs to start somewhere and servicing purely as duty is fine in the beginning. Then, it is the church's job to step in and to educate that person the real meaning of God's work.

Teaching the children is no longer a burden as it used to be. Did you also know that if you try focusing without discrimination of age, you can learn so much from them? One of the best prayers and motivation came from children. When I was in Cambodia I didn't have the will to do my part anymore. One of the children said to me, "Why are you so afraid? Don't you know you are doing it for God?" Can you believe a child said that? Those were the exact words that child said to me. And the other prayer came from a boy in my class. His prayer request was "Lord, let me be able to worship you forever". It moved me so much that I pray about that boy often.

Even though I may not participate fully in everything, even though I fall short in teaching, and even though I may avoid or come late, when the time comes to work, those minutes are spent to honor God. There are good leaders everywhere in all departments of our church. Some have no choice but to continue because no one can replace them. My spiritual energy comes from people like them and like you. I will continue to improve my part in this church. So I am here to say "Thank You".....which can be a shy statement for me.

What I Am Thankful For

David Kim

I am thankful for this ministry. I am thankful for the members that make up this ministry. I am thankful that I got to meet a lot of the members in our ministry (even though I still haven't met all of you). I am also thankful for the Steven MSN, because without him senior high would be completely different. I am thankful for all the teachers in our ministry because they really care about us.

Hyunsu Jeong

I am thankful for his mercy and grace everyday. I am thankful for my family, my friends, and a place I can call home, K.A.P.C.Q. I am very thankful that the Lord was with Derek to guide him safely out of the corn maze. And I am thankful for his strength. He has lent me strength to keep pushing myself and to keep reading his word.

Clara Jung

I just want to say that I am so thankful for being part of such an awesome ministry. I'm thankful for such an amazing pastor and for the wonderful teachers. For the friends I made and for those I have yet to meet. You guys are all beautiful and I feel so blessed to be part of this family!

Priscilla Kim

I'm thankful for the broken, crazy, lovable family, my crazy weird friends, the most welcoming/ generous ministry and most importantly God who has been with me through all my struggles. AND pastor Steve who gave me the opportunity to know more about our Father God!!

Cherry Lau

I'm thankful for amazing friends, a supportive family, and a really amazing youth group!! Proud to be apart of SH!

Alice Chun

I'm thankful for my family, weird friends, the new people I met in this church, and our awesome pastor Steve!

Dain Kim

I am thankful for my family, both of blood and of the blood of Christ; people I can really rely on.

Soojin Lee

Hi I'm thankful for a lot of specific things but I'm also thankful for the basics and the small things that are sometimes over looked—for food, water, a place to sleep at night, my friends, school, and the ministry.

추수 감사절 만찬

성례식

QPEM Fall Retreat

ㅡ김도현 목사 / QPEM

Praise be to God for blessing us with a memorable and transformative QPEM Fall Retreat! I've been here for three QPEM Retreats now and I would have to say that this was the best one yet. So many members shared the same sentiment. We've always had tremendous guest speakers for our retreats. This year was no different as God brought to us Dr. Daniel Kim, professor of the Old Testament at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in St. Louis, MO. Dr. Kim brought to us both a pastoral and academic perspective to God's Word as he served in pastoral ministry before joining the full-time faculty at Covenant.

As well as our wonderful speaker, there was something more special about this year. I felt that this year, of all the years I've been here, was the moment when our QPEM congregation truly exemplified what it meant to be one family in Christ. We were truly brothers and sisters, worshipping, praying, sharing and fellowshipping together. God has built genuine relationships through the past years and He's now brought us together as one household in Christ.

And it was a big QPEM family that went to the retreat. We had a record number of members attending, as 119 total members took part in the weekend retreat. We had a beautiful venue in the Catskills to get away from the busyness of this world and enjoy God's majestic creation. It's in this backdrop that our congregation grew in community through prayer, through the sharing and small group discussions, through the elaborate, fun games and activities, and through the dynamic praise and worship led by our guest worship leader, Pastor Brian Min and our QPEM praise team.

All this prepared our hearts for the message God brought through His servant Dr. Kim. The theme for the retreat was, "Are We There Yet? On the Road to Becoming a Mature Disciple". God has placed the importance of discipleship in our hearts. But we know through Scripture that being a disciple of Jesus requires commitment. So

Dr. Kim shared the five marks of what a mature disciple of Jesus bears.

A mature disciple lives out the cost of discipleship.

A mature disciple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God.

A mature disciple bears the fruit of the Spirit.

A mature disciple engages others through one's spiritual gifts.

A mature disciple actively participates in God's mission.

Dr. Kim shared that the Gospel changes the way we think, and then convicts our hearts, which always leads to action! The Gospel changes our head, our heart and our hands. And the Gospel always leads to action.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always results in a transformed life. Our response in faith to God's salvation always produces good works, the "action", the "doing" you can say. If there is no "action" in our lives, then we need to seriously question whether there's truly been a renewing in our mind, in the way we think. We need to evaluate whether God's truth has truly convicted our hearts, whether the Holy Spirit has truly left that permanent mark, that permanent scar on our hearts. For if He has, then our lives would change, our actions would change, our decisions would change, EVERYTHING in our lives would change. The Gospel drives

us to change... to be on the road to becoming a mature and equipped disciple of Jesus Christ.

Our QPEM congregation was challenged and convicted to evaluate our lives and reflect on whether we are living out a life of discipleship. I believe God spoke to our hearts and opened our eyes to the utmost importance for all believers to be on this road of change. As an author wrote, "conversion is not an end but a beginning... it's to encourage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that it is meant to begin". I pray that we are all on the journey of transformation, as God equips us to become mature disciples and leaders for His kingdom work!

But there's more. As mature disciples, we are then called to go and make disciples ourselves. Remember, God is the one who "saves", but He's called us all to go and "make" disciples for His Son Jesus Christ. (Matt 28:18-20). Let's all respond in obedience to His command and impart our lives to others with the Gospel in such a way, that these lives will be transformed to become mature and equipped followers of Christ themselves, committed to doing the same in the lives of others. Let us all strive to be Christ's disciples and disciple-makers for His kingdom!

Soli Deo Gloria!

QPEM FALL RETREAT

QPEM FALL RETR

하늘나라 네 시어머니가 '문자'를 안 받아!

손현숙

내게는 핸드폰 두 대가 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님 것이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그년 전.
두 분의 결혼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다.
문자기능을 알려 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꽁꽁대시더니 서로 문자도 나누시게 되었다.

그러던 올 3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시러 나가신 후
'띵 동' 하고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어머님 것이었다. "여보, 오늘 '야간 조' 니까
저녁 어멈이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난 너무 놀랐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증상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아버님은 그 후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 라는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 얼마 후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어미야, 오늘 월급날인데 필요한 거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난 떨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네. 아버님. 동태 그림리만 사오세요"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 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아직도 네 시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네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다시 어머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요즘은 내게 문자를 보내신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낸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옷은 어디다 숨겨 두셨어요?"

(퍼온 글)

<수필>

어미 우렁이

ㅡ윤원상 전도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처한 환경과 처지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이민 온 부모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너 때문에 미국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네 아이들을 돌보느라 뼈가 빠지는데...”

그리고는 늘 불평하는 것이 습관처럼, 아니 자기 위로로 계속되곤 한다.

그런데 그런 본인들은 어떠한가?

누구나 다 부모가 있고, 어린시절이 있었다.

내가 지금 있기까지 키워주고 보살펴주신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감사하는가?

감사와 불평을 저울 양쪽에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감사가 무거울까? 불평이 무거울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애를 써준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또 다른 애를 쓰며 남은 생애를 웃으며 살면 어떨까?

새로 수염자리 돋아난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TV를 끄고
마루에 누워서 별을 바라본다.
별보다는 아무래도 자동차의 불빛이 더 빛나 보이는 아들은
그만 지루해서 두 번이나 하품을 한다.
나는 우렁이 얘기를 한다.

옛날에 옛날에 새끼 우렁이가 야금야금 엄마 우렁이를 다
파먹어서 마침내 어미 우렁이는 껍데기만 남았더래.
그래서 텅 빈 어미 우렁이가 냇물에 둥둥 떠내려가자
그것을 본 새끼 우렁이가 "야, 우리 엄마 보트놀이 한다"고
깔깔 웃더래

아이는 재미나서 와락 달려들며
"야, 어미 우렁이 파먹자" 하고 간지럼을 먹이는데
문득 온 몸을 비틀며 내가 파먹어 멀리 떠내려 가 버린
내 어미 우렁이가 그리워 천 길 낭떠러지로 별이 떨어진다.

오늘 한번 우리의 어미 우렁이를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평대신 감사가 넘치는 생이 됐으면 더할
나위없겠다.

찬양의 능력

ㅡ오인수 전도사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대하20:21-22)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미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왜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먼저 찬송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가요? 찬송은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인데, 곧 좋은 것을 좋다고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을 노래로 한 것입니다. 즉 노래로 하는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칭찬과 자랑의 고백입니다.

1. 노래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보기 앞서 노래의 힘을 살펴봅시다. 찬양이나 노래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사(말)와 음악입니다.

a. 말의 능력과 음악의 능력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옆의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 한다고 해봅시다. 말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무언가 나의 감정이나 두 사람 간의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잠언에서는 말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잠 18:21)

음악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은 들으면 즐거워지고, 신이 나고, 어떤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쉬게 하고, 어떤 음악은 춤을 추게 하고 어떤 음악은 마음이 어두워지게 합니다.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춤추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음악은 목숨을 끊게도 하고...

b. 노래의 능력 vs. 찬양의 능력

말과 음악을 함께 담은 '노래'에는 더욱 큰 힘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힘이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듣는 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 찬양에는 노래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의 능력이 나와 너 사이에 발생하는 능력이라면, 찬양은 나와 너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너와 나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차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찬송의 능력

a. 사실

찬송이 능력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사실은 이미 일어났고, 변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사실에 대한 진술'이 판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속을 수 있지만, 금새 진실이 드러나면 그 영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내게 합니다. 진실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노래를 부른다고 합시다.

Ex)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가기를..."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어느 것에 능력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백날 그리워하고 노래해도 떠나간 여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바람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노래는 크나큰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b.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 찬양이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수지'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지는 예쁘다"라고 열심히 노래 부른다고 해서 수지가 저한테 고맙다고 찾아오나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 노래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수지하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찬양은 항상 힘을 발휘합니다.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기'때문입니다.

만약에 수지의 엄마가 제가 불렀던 "수지는 예쁘다" 노래를 부르면 수지가 반응할 것입니다. "당연하지~"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의미가 있게 되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c.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찬양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의 아빠가 돈이 1000억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아빠한테 가서, "아빠 멋있어요. 아빠 최고에요. 아빠, I love you"하는 것 하고, 길가의 homeless 한데 "아저씨 멋있어요. 아저씨 최고에요. 아저씨, I love you"하는 것하고, 어떤 노래가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자'에게 부르는 노래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속에 새일을 행하리" 이 찬양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3. 성경 속의 찬송의 능력

역대하 20장은 찬송의 능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모압과 암몬자손이 편을 먹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왕은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여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소를 향해서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대하 20:17)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러 나갑니다. 맨 앞에 누가 섰을까요? 창을 든 사람? 말 탄 사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대하 20:21) 찬양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압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대하 20:22) 적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졌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직접 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부르면 그 가사가 내 삶에 이뤄질 것이고, 그냥 생각 없이 입술만 따라 부르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2)

예수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대로 우리 삶에 친히 이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사셨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만남

ㅡ이명옥 전도사

팔순이란 말이 아직은 어색한 장로님의 생신에
대연을 배설하여 장로님께 사랑의 빚진 자들이 함께 한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이는 장로님의 여든 해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순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주셨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대를 이은
믿음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평생 베푸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채우심을 우리는 함께 보아왔기에
참 기쁜 날입니다.
의인의 후손에게 부으시는 복을 보기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기에
저희는 행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장로님 가정을 만나게 하심은 제게도 참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만났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만남이었습니다.
허물도 연약함도 마다않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신 손길을
떠올리니 벌써 서른 해를 넘긴 시간들입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을 한결같이 품어주신 장로님과 권사님의

넓은 품이 있어 행복합니다.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거목 같아 감사합니다.
많은 가지에 힘들고 지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임이
참 고맙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시더니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대문 열어 놓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 거두시고
다함없이 퍼 주시더니 이렇게 더 퍼 주시려 부한 삶을 노년에
누리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내시는 모습을 보며 교회 섬기는 자세를
몸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보다, 자녀보다,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목사님 먼저 챙기시는 손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듯 한결같은 팔십 평생의 길에 어찌 돌부리가 없겠으며
세찬 바람이 없었겠습니다.
하지만 그 돌부리에 채어 상처 나고 피 흘려도
슥슥 닦고 다시 일어나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가시었으니
뒤 따르는 자들은 부끄러움뿐입니다.

바람이 세차 모두 다 움츠러들며 제 자신만 챙기는 때에도
어느 누구 입지 못해 그 벌어진 옷깃 속으로 찬바람 맞을까
먼저 다가다 챙겨주시고 겉옷 벗어 덮어주심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여생이 더욱 복되어 번성하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고
기쁘고 즐거운 감사로 하루하루 채워지는 복이 있어
복된 만남을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나가기를 기도하며 팔순의 기쁨에 함께 합니다.
더욱 건강하세요.

늘 사랑받아 행복한 믿음의 딸 명옥 드립니다.

<수필>

가을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

ㅡ정혜경권사

지난 Columbus Day 휴일을 맞이하여 모처럼 한가한 마음으로 바람이라도 쐴까 하고 남편과 둘이서 교외로 가을 나들이를 나갔다.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사과를 따러 Upstate N.Y.이나 Long Island 끝 쪽에 있는 사과 밭에 가곤 했는데 어느덧 아이들이 다 성장하여 하나, 둘 집을 떠나갔고, 아직 함께 있는 막내딸 까지 수련회에 가서 텅 빈집에 둘 만 남아 있으니 왠지 허전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참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안팎의 일로 몹시 분주하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분위기가 조금 익숙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자유롭고 느긋하게 아침 시간을 보내다가 복잡한 뉴욕 시내를 벗어나 80번 고속도로를 타고 여유 있게 달리며 차창 밖에 그림처럼 펼쳐지는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풍경을 바라보니 저절로 탄성이 나오고 일상의 모든 피로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듯 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해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겪었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이 아직도 가슴 한 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서글프고도 귀한 계절!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기약 없이 우리 곁을 떠

나갔고, 갑작스런 헤어짐에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할 힘도, 감사도 잊어버린 채 보냈던 긴 침묵의 시간들.....

그러나 그 힘든 기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고, 더 큰 기쁨을 누릴 내일을 소망하며 위로받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창가에 끝없이 이어지는 단풍든 나무의 잎사귀마다 헤아릴 수 없는 감사를 새겨본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며, 온 세상을 다 주시고도 부족하여 외아들 까지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 친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과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랑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며 영생의 소망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에,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피난처 되심에, 어쩌다 만나는 환난이나 시험 중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나를 사랑해 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나 또한 사랑해줄 사람들이 있고 기도해줄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으리라.

어느 새 온 세상이 단풍의 물결로 넘실거리고 거리에도, 집 뒤 뜰에도 가을의 정

취가 가득하다. 작년에 이어 서툰 솜씨로 늦은 봄에 뒤뜰에 심었던 채소들이 햇빛과 단 비를 맞고 무럭무럭 자라나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가을이 깊도록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초여름부터 피기 시작한 장미와 달리아가 아직도 계속 피어나고 있어 아침저녁마다 눈을 즐겁게 해 주니 또한 감사하다.

가을이 깊어가니 가을을 유난히 심하게 앓던 믿음의 형제가 몹시 그리워진다. 그리워할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머지않아 기쁨으로 만날 날을 기대해보며 감사한다.

긴 여름의 땀과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무르익는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 보여드릴 아무 열매가 없고, 자랑 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을 기대하며 매일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채워지며, 더욱 크고 풍성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추운 계절을 잘이기는 건강요법

한원희 집사 / 알러지 천식 전문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침저녁 한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의 길목에서, 추위를 이기고, 질병에서 이기며, 어떻게 저항력을 키워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요법을 알립니다.

첫째로, 이맘때면 'Flu Shot without Appointment' (예약 없이 독감예방 접종)라는 알림판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심한 달걀알러지 환자나, 가족이나 본인이 독감예방주사에 아주 민감한 반응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분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고, 아주 건강한 2세에서 49세 연령층에서는 독감바이러스 생균 코 스프레이를 코에 뿌려서, 독감에 대한 면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서 예방주사 맞은 기억이 전혀 없거나, 질병력이 불투명한 분들은, 각자 질병에 대한 항체피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없다면 예방주사를 맞도록 합니다.

셋째로는, 잡초나 풀알러지, 피부알러지나, 천식 등 만성 호흡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연령과 증상에 적합한 항히스타민제나 조절제나 흡입제 (기관지확장제나 소염제)등을 사용하여 조기에 치료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불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므로, 항상 수분과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염분과 당의 섭취량을 줄이며, 충분한 휴식과 명상, 또는 자주 걷거나 뛰기 등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취미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증강시켜서,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서 추운계절을 잘 이기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요셉 도서관 신간 안내

김경구 권사

번호	제목	지은이	출판사	연도
1	보석 (고난이 보석이다)	김양재	두란노	2013
2	메시지 신약	유진 피터슨	복있는 사람	2012
3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	닉 부이치치	두란노	2013
4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채프먼	생명의 말씀사	2010
5	3일 기도의 기적	이 에스더	국민일보	2013
6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박 총	포이에마	2013
7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홍성사	2005
8	바람 불어도 좋아	김병년	IVP	2013
9	마음아 이겨라	김 길	규장	2013
10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바실레아 슐링크	규장	2013
11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이상준	두란노	2013
12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최윤식	생명의 말씀사	2013
13	처음 마음	이찬수	규장	2013
14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조이스 마이어	두란노	2013
15	떠남	이용규	규장	2012
16	자녀교육 혁명 하브루타	전성수	두란노	2013
17	내 이름은 모리타니 마마	권경숙	코리아닷컴	2013
18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손현보	누가	2010
19	점프	닉 부이치치	두란노	2013
20	말씀으로 기도하라	지용훈	규장	2013
21	비젼과 리더십	하용조	두란노	2013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은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희망의 복음 전도자 닉 부이치치의 러브 스토리, 결혼, 아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도전의 상징이자 희망의 증거가 된 닉 부이치치가 아빠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

순전한 기독교, C. S. 루이스

'정본 C. S.루이스 클래식' 베스트 컬렉션 특별보급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간편한 사이즈로 제작하였다. <순전한 기독교>는 본래 방송 강연으로 발표된 것을 묶은 책으로, 여러 교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삶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떠남, 이용규

『떠남』은 밀리언셀러《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최근 2년 동안 저자와 그 가족이 몽골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말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한 '떠남'의 의미를 살펴본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은 현실 도피나 책임 회피와는 다르다고 단언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가득하다. 본문은 크게 하나님의 초청을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떠나라', 축복의 부름을 말하는 '떠나는 것이 나의 축복이라', 새로운 땅을 약속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의 네 마음에 나의 은혜를 부으리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채프먼

『5가지 사랑의 언어』는 2001년 출간 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이며 결혼 생활 세미나 인도자로 40여년 이상 부부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해오고 있는 저자 게리 채프먼 박사는 많은 부부들의 실례를 들어가며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전과 리더십, 하용조

『비전과 리더십』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책이다. 많은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지만 정작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갖춘 자라고 전한다.

간증 1

ㅡ한학철 청년

저는 2교구에 속한 청년부 한학철입니다. 이민을 와서 처음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조금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새가족들에게 주는 장미꽃과 찬양속에서 환영 받은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새가족학교 수료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즐겁게 교회 분들을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들과의 교제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시간이 더욱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저는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도 몰랐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대상도 모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국산 형제님의 도움으로 퀸즈장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새가족들을 위한 교육을 7주 동안 받아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주한주 성경공부를 통해서 차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었으며 저를 교회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제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물과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생활을 할 때는 예배만 참석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할 때도 쑥스러워서 조용히 따라 부르던 제가 어느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주간의 특별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석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약한 믿음이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좋은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연약한 저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매일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도록 스스로 다짐하며 부족한 믿음을 채우려면 성경공부도 더 많이 해야겠고 생각하여봅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에 처음 온 저를 인도해주시고 챙겨주신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들, 청년부 임원들, 그리고 새가족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수고하신 부원들 특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 여전도회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증 2

ㅡ최지현 청년 / 청년 3부

저는 5교구 청년 3부 최지현입니다.

얼마 전 저는 그동안 제가 살며 지나온 곳들을 유명한 강 유역으로 넓게 구분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따져보니 한강에서 온타리오 레이크, 미시시피 강에서 찰스 강으로 이동하며 강을 따라 다른 삶과 이야기들을 펼쳐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15년 전에 언젠가 뉴욕에서 시대적 소명을 가진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4개월 전 인턴의 기회를 얻어서 정말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직은 미지수여서 두려움과 설렘 가운데 왔지만, 허드슨 강에서도 신실하게 동행해주시는 '여호와 닛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새가족 교육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인터넷을 검색해서 집에서 멀지 않은 교회를 정해서 온 것이지만 교회를 처음 나온 날 새신자 사역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제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또 여전히 저의 가족이 다니고 섬기는 한국의 분당 할렐루야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김승욱 목사님이 퀸즈장로교회에서 청년시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도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며 제가 이 교회로 오게 된 것이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화요일 새가족 교육에도 열심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변호사 시험을 치루고, 새로운 환경에서 인턴근무를 하며, 혼자 뉴욕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심신 적으로 지쳐있었고, 뉴욕으로 오기로 한 선택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 때문에 마치 오늘이 저의 삶 가운데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첫 번째 새신자 교육 말씀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저의 삶에 있다면 가시밭길이 가장 축복된 삶이며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신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교육기간 동안 그 어느 것도 끊지 못하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미 승리한 경기를 함께 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며 초신자의 첫사랑과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선한길로 순조롭게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저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선하시고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졸업한 후에는 찬양대에서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주저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연히 옆자리에서 점심식사 하시던 권사님께서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찬양대에서 함께 섬기자고 권유를 하시기에 저에게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로 순종해서 지금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주 동안 수고해 주신 목사님,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신 여전도회와 늦은 시간까지 라이드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수료 예배를 준비하면서

ㅡ이영희 집사

잔칫집 같은 화요일은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움과 미소가 있다.

잔칫집에 가면, 반가이 반겨주는 넉넉한 여유로운 미소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에는 어머니가 주는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공유한다.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애정을 잔칫집에서 만끽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여지없이 다시 돌아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새가족부원의 안내를 받아 새가족란에 나와 두 딸의 이름을 써내려가던 5년 전의 일이 뇌리에 스친다. 손바닥에 흥건한 땀이 맺힐 만큼 긴장되었던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려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두려움과 떨림과 한편으론 어릴 적 할머니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되뇌던 나의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목소리가 슬그머니 내 귀에 맴도는 듯 했다.

내 어릴 적 기억의 교회는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통곡하며 구슬픈 찬양을 부르다가 되돌아오는 슬픔만이 가득한 장소라, 마음이 선뜻 동하여 오지 않았다. 단 하루의 반전으로, 나에겐 슬픔의 집이었던 교회가 잔칫집으로 역전되는 희열을 느낀 날도 있다.

크리스마스 날이면, 늘 교회를 다녔던 양, 두 동생의 손을 부여잡고, 뛰박질하여 교회에 갔던 기억에 미소 짓는다.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이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에 눈깔사탕을 아껴먹으며 교회를 뒤로했던 철없던 유년시절을 지나, 청년시절을 보내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서야 할머니의 유언으로, 교회를 가보게 되었다. 그저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착한마음을 갖게 하는 교육기관 정도라고 생각하며, 주일이면 어김없이 가방을 챙겨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회사 서류와 눈싸움을 하면 보낸 주일들이 내 마음을 더욱 강퍅하게 만들었던 듯하다.

미국에 와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면서, 7주간의 교육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내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 어릴 적에도, 문밖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고, 울컥인날도 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7주간의 새가족이 공부하는 화요일은 내 어릴 적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이었다. 평안하고 풍요로우며, 눈깔사탕이 닳아 없어져도, 혀끝에 맴도는 달달함을 오래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크리스마스 같은 날.

제 107기 수료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의 99기 졸업식 때가 회상된다. 축하하며 기도로 응원해주셨던 주위 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값진 것인지 되새겨 보라시는 어느 장로님의 말씀에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듯, 고민할 것도 없이 새가족부를 섬기게 되었다. 4년 남짓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매주일 초심의 마음 그대로 늘 잔칫집에서 손님을 맞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는 모두를 반갑게 맞는 일원으로 오랫동안 남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가족 학교 수료 예배

새가족 학교 수료 예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 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고.

그 친구는 별반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도 별로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조차 없다니...

그래서 비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만약 자신이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보고 느낄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Three days to see)' 이란제목으로, '애틀랜틱 먼스리' 1933년 1월 호에 발표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글은, 당시 경제 대공황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을 적잖이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글을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돼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자 소망했던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특별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보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는 모릅니다. 아니 누구나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 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 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내일이면 헬렌 켈러의 간절한 소망을 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뒤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인생의 7가지 선물

–시찌다 마코토 著

☆ 첫 번째 선물 – 존경심

존경심은 숭고한 마음의 작용으로 사람을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든다. 누구나 인생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자.

☆ 두 번째 선물 – 인내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게 마련이다. 자녀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가르쳐라.

☆ 세 번째 선물 –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전해 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다.
부모가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주고 부모 자식 간의 신뢰 관계가 확고하다면 자녀 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 네 번째 선물 – 의욕

자녀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를 연출하자.
부모 스스로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라.

☆ 다섯 번째 선물 – 개성

아이들은 모두 잘 갈고 닦으면 빛을 내는 보석과 같다.
그 아이만의 좋은 개성은 부모만이 잘 살릴 수 있다.
자녀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 여섯 번째 선물 – 배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관을 갖도록 조언해주자. 높은 이상은 배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도전하는 것에 신선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

☆ 일곱 번째 선물 – 꿈

자녀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면 칭찬해주자.
그것이 자녀의 꿈과 마음을 키워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성탄절 대영광송 연주를 마치고

—유경선 집사

지난해 성탄절의 하이든의 오라트리오 천지창조에 이어서 올해에도 교회음악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구노의 대영광송을 연주하리라는 윤원상전도사님의 발표에 벅찬 마음으로 3개월의 연습시간과 성탄주일에 공연을 통하여 온 성도님들과 함께한 은혜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중에서 사도신경과 거룩 거룩은 귀에 익은 곡 이었으나 이렇게 전곡을 모두 연주함에 동참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좋은 체험으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으로 안다.

윤전도사님께서 연주전에 이 곡을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초연되었던 1855년 11월 연주가 끝나자 그곳에 참석했던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였던 생상스(Saint-Saens) 가 "처음엔 눈이 부셨고, 다음엔 매료당했는데 결국은 정복당했다."라고 감탄하면서 너무도 간결하면서도 웅장했으며 마치 한송이 장미가 내려앉는 듯 했다고 표현하였다. 정말로 매 연습 때마다 가슴이 쿵쿵거릴 정도로 감동받을때가 많았음을 고백한다.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곡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과 힘은 과연 하나님께서 대 음악가인 구노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주신 선물임을 잘 알 수 있다.

구노의 교회음악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이 "대영광송" 은 구노 자신이 이 곡의 창작과정에서 "음악으로써 심오하고 끝없는 신앙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더구나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써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렇게 멋있고 웅장한 곡을 작곡하고도 이런 고백을 하다니... 그 겸손한 자세가 더욱 아름답다. 우리 모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안다. 이 곡의 창작 과정에 대한 구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면서 나도 모르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 에서부터 나옴을 느끼게 된다.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캐럴보다도 이 음악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의 글을 본 적도 있다.

이 곡은 선율의 아름다움도 그렇지만 각 곡 마다 심금을 울리는 그 무슨 힘이 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때가 많았음을 고백한다. 교회 성가대 지휘자와 오르간니스트 활동하였던 그이었기에 각 곡마다 성가합창의 진수를 충분히 느끼며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악보상의 모양이지만 결코 쉽지 않고 웅장한 합창의 효과를 느끼게 해준다.

첫째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곡은 단순한 선율로 이어지면서 세 솔리스트와 점차 꽉 찬 화음의 합창으로 이어진다.

둘째곡 "하나님께 영광을" 아름다운 소프라노 독창으로 조용히 불려지다가 끝에 환희에 찬 합창으로 끝맺는다.

세째곡 "사도신경" 이 곡은 제일 매료되고 매 연습시간마다 소름 끼치는 감동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트럼펫의 전주에 따라 확신에 찬 합창으로 시작되다가 느린 아다지오로 변하면서 성스러운 분위기의 삼중창이 아름다운 합창과 주고받는다.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로 인해 합창이 점점 고조되면서 아름다운 하프의 반주로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 된다. 아!!!! 너무나 감동이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런 곡이 탄생할 수가 없으리라.

네째곡에서는 아주 유명한 거룩 거룩 "Sanctus"가 따른다. 테너 독창과 이어지는 합창으로 구성된 이 곡은 그 선율의 아름다움과 오케스트라와의 연주에 의해 웅장한 느낌을 더해준다.

여기에 비교되는 다섯째곡 “복 있도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어린양”과 마지막 일곱 번째 “구원의 주”로 이 곡 대영광송 전체를 조용히 끝맺는다.

프랑스 낭만주의 교회음악의 대표작 이었던 Charles Gounod 의 대영광송...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퀸즈장로교회 성탄기념 공연을 통해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올려드린 성탄축하 공연의 모든 영광을 기쁘게 받으신 줄 확신한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이 곡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의 감격으로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성가대원으로서 더욱더 영광 돌리려고 다짐해 본다.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아름다운 연합성가대로 이끄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신 윤원상전도사님과 솔리스트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한 오르간 반주로 오케스트라 효과를 내며 매 연습시간 수고하신 윤현주사모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2013년 성 탄 절
MERRY CHRISTM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

은혜를 받은 자여

—편집부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해마다 다른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로 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하늘엔 오직 영광만이 가득한 2013년의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늘 더 나은 예배, 더 풍성한 예배, 더 신령한 예배를 추구하는 퀸즈장로교회의 2013년 성탄 축하 예배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예배로 드렸습니다. 김도현 목사님이 '성탄절의 가족상'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말씀을 선포하셨고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도도 황태현 집사님이 영어로 이무근 장로님께서 한국어로 각각 드리시고, 찬양도 한국어 찬양을 '캐럴의 축제'로 드렸고, 영어예배 찬양대가 'Let us adore, O Come all ye Faithful'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참신한 시도인 두 가지 언어로 드려진 예배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 예배당의 통로에 보조 의자를 배치하고도 자리가 모자를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후에는 소철화 집사님의 특송이 있었고 이어서 성탄헌금을 드린 후에 각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축하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억의 한 자락이 될 찬양이 온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진 후에 'Joy to the World' 찬송을 부른 후에 장영춘 원로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은혜와 감사로 마쳤습니다.

QPEM

영아부 - 천사들의 노래가, 딩동 딩동 딩동

유아부 - 반짝 반짝 예수님 별, 우리 주님 나셨네

유치부 - 따라 따라 따라요, 기쁨 가득한 날

유년부 - 그 이름 임마누엘, 감사로 찬양해요

초등부 - 왕이 나셨네

중고등부 - 모든것 되시는 주님

2013 Junior High Winter Retreat

Soo Min Kim 김수민 (9학년)

This retreat has been one of the most memorable times in my life. Not only did I receive the blessing to be in the Lord's presence but I was provided a chance to mature spiritually. It was a whole new experience to be given the honor to glorify our heavenly Father's name and bond with my teammates.

I served as the Junior High ministry's vice president and also as the worship team leader. The role and its responsibility engraved in my heart extreme anxiety. I was afraid and hesitant and my indecisive nature made me question myself whether I was worthy of this position. Conflicts and disputes barricaded my way. Every week seemed like another representation of distress and torture. I realize that the devil was trying to distract me from worshipping the Almighty. Nevertheless, the Lord's love for His child washed all of this away. Step by step, I started to gain confidence. As we were preparing for the retreat, He guided me in His Spirit step by step. He inspired me. He planted a seed of the Spirit, to give my all in praising Him.

I was also worried about being a team captain. In fact, I thought I had absolutely no leadership potential. However, during this retreat, God led me into true worship. I learned that in Him, nothing is impossible. And as Christians, we must learn to love each other in Christ. Also, everything we do, whether it be through actions or words, reflect our image of Christ to others. Therefore, let us all reunite as one body in Christ.

Daniel Kim 김민중 (8학년)

The retreat had promised and opened the door which leads to God. Through Pastor Jim's sermons, I was reminded of the life changing beliefs and events. Many of the Junior High members had been changed to be more like Christ. Pastor Jim, Doogie and the teachers had poured out their love for the children at the junior high. The retreat of 2013 changed me by teaching me I must be consistently committed to my prayers that God would give the emotion to carry on. I forgot what I had committed to and what I had prayed about without being in the presence of God. This retreat had taught me how to get rid of my habits of sin and how to forgive even more than I have before. The retreat had motivated me to want to lift God's name on highly not only saying that I am a Christian from the heart, but having the actions of a true Christian come from my heart. To prove this, I had prayed for others 1 to 1 and asked Pastor Doogie and Pastor Jim for guidance, I have been forgiven by others and I forgave those who sinned against me. I had committed to be kinder and to listen better to my neighbor and put my heart into it. Pastor Jim had taught me how God will be your Father and will see

Jesus standing before you as a replacement. But if God had seen me in a state by myself, He would be broken because of how filthy I am and how I am covered in sin. I am trying to be more like Christ so if God sees me again, he would see Christ, His Son, in me. I have also learned to pray harder in a way that makes me really care about the people I am praying about. I had learned how to truly love my family and always to put God as number one.

Linus Chun 전태호(9학년)
This retreat has meant a time of relationship with my fellow Christians and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Before I came here, I was a Christian zombie - a believer of Christ without Spiritual energy. However, that has changed - with the help of wonderful teachers and pastors, my spiritual energy has skyrocketed. Thanks to long prayers, sermons and praise, I have learned that I was starving and seeking spiritual energy to feed myself. I have also learned that the Heavenly Father is always listening. He always has time to listen to prayers and He will listen because that's how much He loves us.

Thanks to this retreat, I have been revived from the dead. I have awakened, and by doing so, I have grown as a Christian. This retreat has meant that God has made a promise to me. A promise is that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will always listen to our hearts and mind thoroughly and clearly.

Joseph Pak 박요셉 (9학년)
This retreat has spiritually led me to a better relationship with God. Prior to this retreat, my relationship with God was dead. Whenever I went to church, the worships and the sermons that I heard didn't affect my heart and mind whatsoever. I came to church physically but not mentally. During this retreat, Pastor Jim affected my soul and mind by providing that God is my heart, soul and everything. The filthy and bloody words from my lips hurt the heart of God and I must be forgiven. I realized that Jesus has forgiven all my sins and I am thankful for this.

This retreat has also truly made me see who God truly was. During the nights where we prayed for forgiveness, the tears of my eyes continued to drop down. While JDSN prayed for me, my heart and my mind sank which made me also realize that I am living the life I shouldn't be. So following this Sunday, my priority is to come to church on time and put my full mindset on God and His Words. I am a sinner and I finally realized that I am Yours, God.

Christine Kim (7학년)
This retreat made me believe that Christ Jesus died on the cross to save us from all of our sins. This retreat also inspired me to pray daily and to read the Bible at least twice a week. I think that I understand what the Bible says clearer now.

During this retreat, I learned that I was chosen and adopted by God. I also learned that you must be alone, broken and changed by God when encountering God. We must meet Jesus face to face, but in order to do that, we must change our heart and life.

I have learned that the worship of God the Father and Jesus our Lord in truth and Spirit is the essence of Christianity. The Pastor had also taught me the context of idolatry, the committing of idolatry and the uncovering of idolatry. That we should break, surrender and forget the idols that we worship over God.

Lastly, I have learned that no matter how many times we wash ourselves, we will still be filthy in front of God. But Jesus saved us by dying on the cross for our sins.

기도하는 손

앨버스 둘러가!~ 남긴 말!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요.”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듀러’는 그림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나서, 역시
화가의 꿈을 가진 한 청년을 만나 함께 하숙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도 맞고 꿈도 같아서 절친한 그림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그들은 돈벌이를 하면서 그림을 배워야 했기에
제대로 그림공부를 할 수 가없었습니다.
그러자 ‘듀러’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먼저 그림을 배우게. 내가 돈을 벌어서 뒤를 대겠네.
나중에 자네가 성공해서 그림이 잘 팔리면
나는 그때 그림공부를 하도록 하지.”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듀러’는 그림공부에만 전념하였고
그 친구는 고생고생을 해가며 돈을 벌어서 ‘듀러’의 학비를 댔습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듀러’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지만
그 친구는 너무 심한 고생으로 인해 손이 마디가 지고 뒤틀려서
이미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어느 날 ‘듀러’는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원망 대신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친구에 대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린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기도하는 손>입니다.

지키시고, 은혜주시고, 평강주시는 하나님

—편집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무지갯빛 추억과 온갖 기쁨과 설움 가운데 얼룩진 한 해가 어느덧 아쉬움 속에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금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찬란하게 밝아오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디에서 맞이할 것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 가도 푸근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아름다운 섬김과 위로와 평강이 흐르는 우리 아버지 집에 찾아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년과 같이 두어 시간을 예배 실에 앉아 긴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금년의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 되었습니다. 2013년 마지막 날 밤 10시가 다 되어 교회에 들어오니 모든 교역자들이 환한 미소로 교우들을 반겨주며 지하 친교실로 안내를 하시기에 영문을 모르고 내려가 보니 와!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말끔히 정리된 지하 친교실과 체육관 여기저기에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과자와 과일, 음료수 등이 가득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자유롭게 담소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1부 송구영신의 밤이 시작되고 허경화 장로님의 기도 후에 온 교우들이 컵에 음료수를 채우고 건배하며 서로 축복과 격려의 말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을 주고받고 맛있는 스낵을 먹으며 푸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한 해 동안의 피로와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2부 송구영신 기도회는 밤 11시에 시작되어 목사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호 10:12) 는 말씀과 337장 찬송 후에 지난 한 해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함께 기도했고, '새 일을 기대하라' (사 43:18-19)는 말씀과 542장 찬송 후에 새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김 성국 목사님의 성경 봉독(민 6:22-27)에 이어 글로리아 선교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 있은 후에 "지키시고, 은혜주시고, 평강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원수의 손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 담대히 구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으므로 우리의 내면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복된 메시지였습니다. 248장 찬송 후 광고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지난 33년간 우리 교회에서 반주

자로 헌신하다 이사하여 우리교회를 떠나게 되는 현정숙 집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386장 찬송을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송구 영신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성구 분배 시간이 되어 온 교우들이 두 줄로 나가 새해에 주실 축복의 말씀을 목사님께 받아들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설레는 2014년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축복과 새롭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다 같이 힘차게 전진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이 흐르는 교회

ㅡ편집부

2014년 신년하례예배가 1월1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소망의 한해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로 가득 메운 가운데,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예배선언으로 드려졌습니다. 올해 40 주년을 맞는 우리 퀸즈장로교회의 목표는 "축복이 흐르는 교회" 라고 선포 하셨습니다. 이어 신명기(8:1-10)의 말씀으로 축복이 흐르는 교회란..

1) 축복의 근원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입성과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사람의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신9:5)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땅 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교회의 축복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교회의 축복이 흐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 봐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입니다.

2) 축복의 넘침에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현재에 만족해야 행복 합니다. 가나안땅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본문은 그곳을 아름다운 땅, 골짜기 산지 어디서나 물이 흐르고, 식물이나 광물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축복이 흐르는 교회의 성도들은 언어부터 달라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만족해합니다.

3)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특징은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과 성을 쌓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치고 삽니다. 네편과 내편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는 울타리를 걷고 남을 섬기기를 좋아 합니다.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우리 모두 축복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2014년이 되시길 축원 합니다.

말씀 후에 각자의 소원기도제목과 축복씨앗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신년제직임명, 성찬예식과 함께 새해에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위한 담임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신년하례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새해의 다짐: 1, 성수주일에 힘씁시다.
2, 모든 예배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합시다.
3, 말씀은 생활화를 위해 성경읽기, 성경 문답서, 성경쓰기에 힘씁시다.
4, 헌금생활(십일조, 감사, 선교, 일천번제)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5, 각 부서에서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6, 지난 1년간 맡은 직분과 의무에 빚진 것이 없도록 점검합시다.

축복이 흐르는 교회

축복이 흐르는 교회

오늘의 말씀
신명기 8장 1-10절
축복이 흐르는 교회
말 씀: 김성국 담임목사
4년 신년 하례 예배
축복이 흐르는 교회
주후 2014년 1월1일(수) 오전 11시

축복이 흐르는 제직

—편집부

밝고 아름다운 소망의 2014년의 시작, 말씀과 기도로서 청지기의 삶을 훈련 받는 2014년도 제직 수련회가 1월 10일 (금)부터 1월 12(주일)까지 "축복이 흐르는 제직" 이라는 주제로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가운데, 폭포수같이 넘치는 기쁨과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축복이 흐르는 교회와 제직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월 10일 (금) 저녁 '기왕이면 앞장서라' (수1:1-18)

1)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었노니? -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순종하는 자가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2) 구원, 그 행복한 여정의 비밀 - 구원의 여정은, 신분의 구원(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이 예표하는 칭의) 과 수준의 구원(광야 40년의 연단이 예표하는 성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여 약속의 땅(구약의 가나안이 예표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3) 앞장 서는 사람들 -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옛날에 한 약속대로 앞서서 요단을 향하여 간 것 같이 헌신의 무리가 일어나야 하며, 또한 형통한 자가 앞장서야 하므로 말씀대로 행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형통한 제직이 되어야 합니다.

1월11일(토) 새벽 '뜻박의 고백' (수2:8-18)

1)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 40년간의 광야 생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은 두 명의 정탐군을 조용히 보내어 그곳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2) 우째 이런 일이 - 두 명의 정탐군들이 기생 라합에 집에 숨어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을 듣고, 마음이 녹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 붉은 줄, 사랑 줄, 생명 줄 - 이스라엘의 정탐군을 숨겨 줌으로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약속의 증표로서 사용된 붉은 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며,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1월 11일 (토) 저녁 '싯딤을 떠나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수 3:1-6,5:9)

1) 아, 싯딤! - 싯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음행한 장소입니다. 그곳을 떠나야 요단에 갈 수 있었듯이, 성도들과 제직들은 죄의 자리를 떠나야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요단을 건널 때 -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일 후에 요단을 건넜던 것 같이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필수이며,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먼저 간 것같이 매사에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3) 길갈, 수치가 굴러가다 -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참 할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1월12일 (주일) 오전 8시30분 '다시 일어나는 교회' (수8:1-12, 30-33)

1) 여리고를 허문 침묵과 함성 - 여리고 성을 허무는 마지막 순간에 필요했던 것은 침묵과 함성 이전에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시다.

2)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3)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 축복이 흘러넘치는 자리입니다.

1월1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한계 상황에서' (수 10:6-14)

1) 계약을 조심하세요 -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일 지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기브온을 도우러 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닥칠 때에 우리는 처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2) 유일한 계기판, 말씀 -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큰 승리를 이룬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3) 태양 기도, 나의 기도 -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닥칠 때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월12일 (주일) 오후 12시15분 '그 사람, 갈렙' (수 14:6-15)

1) 꿈을 가진 사람 - 갈렙의 삶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것이 목표인 삶이었습니다. 갈렙과 같이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것이 목표인 삶을 삽시다.

2) 오늘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사람 - 갈렙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에 신앙의 도전을 주고 축복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그 사람은 그 어디에 - 이 세대의 갈렙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가 이 세대의 갈렙이 되고, 이 시대의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월 12일 (주일) 오후 2시 '그들은' (수22:1-6)

1) 그들은 못했다, 안했다, 지체했다 -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에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 그들은 더욱 확장했다 – 단 지파는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쓰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갑절의 부흥을 주실 것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들은 책임을 다하고 돌아갔다 –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죽음을 각오하고 정복전쟁에 앞장섰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놓으신 승리와 축복을 못한다고, 안한다고 말하며 지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이 흐르는 공동체가 됩시다.

1월 12일 (주일) 오후 4시 '제직이여, 결단하라' (수 24:1-18)

1) 내가 –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고 말씀하시며 계획하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때에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2) 가지치기 –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두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합시다.

3) 섬기는 제직, 축복이 흐르는 제직 – "우리" 모두가 주를 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 축복 받고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제직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 제직원 수련회
축복이 흐르는 제직
주후 2014년 1월 10일(금) ~ 1월 12일(주일) 강사: 김성국 목사

축복이 흐르는 제직

ㅡ김태훈 교사

고등부는 요번 부흥회 때 David Yi 전도사님을 모시고 “Chief Purpose” 라는 주제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남들과는 더 힘든 삶을 사신 전도사님의 소개와 함께 TGIF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Chief end(purpose) of man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분을 영원히 즐거워 하는 것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되시게 사는 것이라는, 그래서 Today, God is first 라는 새로운 관점의 TGIF에 대해 말씀하셨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을 하나님이 처음 되시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라는 말씀으로 첫 날 저녁을 마쳤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좋아하고 TGIF에 대한 생각을 좋아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또한 둘째 날 저녁에는 전도사님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 예배는 욥기 23장 8-12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문을 가질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불평이 아닌, 그가 통과하고 있는 고통과 연단들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정금 같이 하실 것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에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ㅡ최진식 집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제게도 주신 언약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아 이민을 떠나온 저와 저희 가정은 영육 간에 순탄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악가로서 또 오페라 싱어로 많은 활동을 했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리고 음악학원을 경영하며 조금은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저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음악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몇 년은 오페라 극장에서 몇 번의 공연도 가졌으나 제가 원하는 길로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또한 찬양자로, 지휘자로 교회를 섬기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음악활동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일을 해야 했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가야 했기에 성악가로서의 제 꿈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성악가에게 음악이란 소리로 나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활동할 무대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낙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청년시절부터 지휘자로 예배에 시종들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쓰임 받는 일은 언제나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넘치는 감사요, 감격이요, 은혜이고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평탄한 삶 속에 순조롭기만 하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과 환란이라 하는 이름과 함께 찾아오셔서 기이하고 신묘막측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비자갱신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을 아내가 기한 안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7년을 일해 온 병원에서 실직을 하게 되었고 저희의 신분도 오갈 데 없어지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려는 듯, 마지막 보류인 지휘자로 섬기는 교회에서 신청한 비자마저도 그 길을 막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많이 울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때부터 종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다한 그 순간, 우리의 가진 모든 지식이 바닥난 그때 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그 곳에서 좌절의 통곡이 하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수없는 회복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처음 응답은 평강이었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아픔 속에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실 새일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심령 깊이 생겨난 것입니다. 종의 가정은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며 믿음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결혼하면서 부터 가정예배를 늘 드리던 저희는 환란 중에 더욱 힘을 다하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더욱 전심으로 예배드렸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함께 구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적의 힘은 바로 수없이 심령에 부어주신 축복과 회복의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이끌리어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이길 힘을 주시어 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도 깊은 평강을 주시고 말씀에 이끌리어 기도하며 찬송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환란 중에 경험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제게 주님께서 주신 2013년 축복씨앗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제 영혼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 28)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알기에,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기에 순종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며 제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고 도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신학교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아내가 시험에 통과 되었고 예전에 있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신분 회복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아직 7년 전에 영주권 신청한 서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감 3일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극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은 끝이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보던 중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셨다"는 말씀을 받고 깊은 찔림이 있어, 아내와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빠른 회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40일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변호사가 3개월 더 걸릴 것 같다는 수속이 빨라졌고 핑거프린트를 했으며 그 40일 마지막 날에는 아내의 출근날짜까지 정확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도 바로 통과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죽은 아이로의 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죽은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 기적의 순간을 붙들고 깨어나길 늘 기도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기에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죽은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처럼 아무 소망이 없었으나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저의 삶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을 따라 다니며 그 표적을 세상 가운데 보인 것처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 참예하는 자가 되었으니, 나사로처럼 일어나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 저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전하는 앞으로의 진로와 사역의 나아갈 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찬양의 은사위에 불을 내려 주셔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만민과 열방 중에 높여 드리는 도구가 되길 소망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환란을 통과할 때 지켜봐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셨던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시나요?

— 결혼이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에 비해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7.5배 높다는 사실을.

—천재라는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왼손으로 글을 쓸 수 있었으며,

미국의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도 오른손으론 라틴어, 왼손으론 그리스어를 썼다는 사실을.

—코카콜라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세계에서 단 2명뿐이다.
원래는 7명이었으나 5명은 죽고 2명만 남은 것인데 설탕, 탄산수, 캐러멜,인산, 카페인,쓰다 남은 코카잎과 콜라콩을 혼합한 것이나 1%가 밝혀지지 않아 수많은 화학자가 80년이상 노력했으나 헛수고였다. 이 두사람도 죽거나 비밀을 잊어 버리게 되면 조지아 신탁은행에 비밀문서를 개봉한다. 그러나 미 약물관리국은 특정한 주원료제품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코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는 사실을.

우동 한그릇

ー구리 료헤이

1 장

해마다 섣달 그믐날이 되면 우동집으로서는 일년 중 가장 바쁠 때이다. 북해정(北海亭)도 이 날만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보통 때는 밤 12시쯤이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그날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10시가 넘자 북해정의 손님도 뜸해졌다.

사람은 좋지만 무뚝뚝한 주인보다 오히려 단골손님으로부터 주인아줌마라고 불리고 있는 그의 아내는 분주했던 하루의 답례로 임시종업원에게 특별상여금 주머니와 선물로 국수를 들려서 막 돌려보낸 참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막 나갔을 때, 슬슬 문 앞의 옥호(屋)막을 거둘까 하고 있던 참에, 출입문이 드르륵하고 힘없이 열리더니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6세와 10세 정도의 사내애들은 새로 준비한 듯한 트레이닝 차림이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서오세요!"
라고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그 여자는 머뭇머뭇 말했다.
"저... 우동... 일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뒤에서는 두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난로 곁의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주방 안을 향해,
"우동, 1인분!"
하고 소리친다. 주문을 받은 주인은 잠깐 일행 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예!”
하고 대답하고 삶지 않은 1인분의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는다.
둥근 우동 한 덩어리가 일인분의 양이다. 손님과 아내에게 눈치 채이지 않은 주인의 서비스로 수북한 분량의 우동이 삶아진다.

테이블에 나온 가득 담긴 우동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고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맛있네요.”
라는 형의 목소리.
“엄마도 잡수세요.”
하며 한 가닥의 국수를 집어 어머니의 입으로 가져가는 동생. 이윽고 다 먹자 150엔의 값을 지불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세 모자에게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많이 받으세요!.”
라고 주인 내외는 목청을 돋워 인사했다.

2 장

신년을 맞이했던 북해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다.
전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끝내고 10시를 막 넘긴 참이어서 가게를 닫으려고 할 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의 반코트를 보고 일 년 전 섣달 그믐날의 마지막 그 손님들임을 알아보았다.
“저... 우동... 일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작년과 같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우동 일인분!”
하고 커다랗게 소리친다.
“네엣! 우동 일인분.”
라고 주인은 대답하면서 막 꺼버린 화덕에 불을 붙인다.
“저 여보, 서비스로 3인분 내줍시다.”
조용히 귀엣말을 하는 여주인에게

"안돼요. 그런 일을 하면 도리어 거북하게 여길 거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둥근 우동 하나 반을 삶는다.
"여보,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좋은 구석이 있구료."
미소를 머금는 아내에 대해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삶아진 우동을 그릇에 담는 주인이다.
테이블 위의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싼 세 모자의 얘기소리가 카운터 안과 바깥의 두 사람에게 들려온다.
"음... 맛있어요..."
"올해도 북해정의 우동을 먹게 되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다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에 주인 내외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날 수십 번 되풀이했던 인사말로 전송한다.

3 장

그 다음해의 섣달 그믐날 밤은 여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번성하는 중에 맞게 되었다.
북해정의 주인과 여주인은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10시를 넘긴 참이어서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 있는 메뉴 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금년 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씌어져 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2번 테이블 위에는 이미 30분전부터 <예약석> 이란 팻말이 놓여져 있다.

10시 반이 되어 가게 안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나 한 것처럼 모자 세 사람이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 형이 입고 있던 잠바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는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라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엄마는 조심조심 말한다.
"저... 우동... 이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넷... 어서어서. 자 이쪽으로."
라며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거기 있던 <예약석> 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카운터를 향해서 소리친다.
"우동 이 인분!"
그걸 받아,

“우동 이 인분!”
이라고 답한 주인은 둥근 우동 세 덩어리를 뜨거운 국물 속에 던져 넣었다.
두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야기도 활기가 있음이 느껴졌다.
카운터 안에서 무심코 눈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여주인과, 예의 무뚝뚝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는 주인이다.

“형아야, 그리고 쥰(淳)아...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구나.”
“...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켰던 사고로, 여덟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잖니. 보험으로도 지불할 수 없었던 만큼을, 매월 5만 엔씩 계속 지불하고 있었단다.”
“음--- 알고 있어요.”
라고 형이 대답한다. 여주인과 주인은 몸도 꼼짝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
“지불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실은 오늘 전부 지불을 끝낼 수 있었단다.”
“넷!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정말이지. 형아는 신문배달을 열심히 해주었고 쥰이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로부터 특별수당을 받았단다. 그것으로 지불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됐어요! 하진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할 거예요.”
“나도 신물배달 계속할래요. 쥰아! 힘을 내자!”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지금 비로소 얘긴데요, 쥰이하고 나,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11월 첫째 일요일, 학교에서 쥰이의 수업참관을 하라고 편지가 왔었어요.
그때 쥰은 이미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놓고 있었지만요.
쥰이 쓴 작문이 북해도의 대표로 뽑혀 전국 콩쿠르에 출품되게 되어서 수업참관 일에 이 작문을 쥰이 읽게 됐대요.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드리면... 무리해서 회사를 쉬실 걸 알기 때문에 쥰이 그걸 감췄어요.
그걸 쥰의 친구들한테 듣고... 내가 참관일에 갔었어요.”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전원에게 작문을 쓰게 하셨는데, 쥰은 <우동 한 그릇> 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지금부터 그 작문을 읽어드릴께요. 우동 한 그릇 이라는 제목만 듣고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쥰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작문은... 아빠가 교통사고

로 돌아가셔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조간 석간신문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등... 전부 씌어 있었어요. 그리고서 12월 31일 밤 셋이서 먹은 한 그릇의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 셋이서 다만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 주신 일. 그 목소리는...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쥰은,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라! 행복해라! 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일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주인과 여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카운터 깊숙이에 웅크린 두 사람은 한 장의 수건 끝에 서로 잡아당길 듯이 붙잡고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작문 읽기를 끝마쳤을 때 선생님이, 쥰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와주었으니까 여기에서 인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형아는 어떻게 했지?"

"갑자기 요청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항상 쥰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동생은 매일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활동 도중에 돌아가니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생이 <우동 한 그릇> 이라고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쥰과 사이좋게 지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차분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질 듯이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그믐날밤의 광경이었다.

우동을 다 먹고 300엔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깊이깊이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을 주인과 여주인은 일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전송했다.

4 장

다시 일년이 지나---

북해정에서는, 밤 9시가 지나서부터 <예약석> 이란 팻말을 2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세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우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정은 장사가 번성하여 가게 내부수리를 하게 되자 테이블이랑 의자도 새로이 바꾸었지만 그 2번 테이블 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새 테이블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에서 단 하나 낡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것이 여기에?"

하고 의아스러워 하는 손님에게 주인과 여주인은 <우동 한 그릇>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 테이블을 보고서 자신들의 자극제로 하고 있다,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의 손님이 와줄지도 모른다, 그때 이 테이블로 맞이하고 싶다, 라고 설명하곤 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테이블'로써 이 손님에게서 저 손님에게로 전해졌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테이블이 비길 기다려 주문을 하는 젊은 커플도 있어 상당한 인기를 불러 일으켰다.

5 장

그러고 나서 또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섣달그믐의 일이다. 북해정에는 같은 거리의 상점회 회원이며 가족처럼 사귀고 있는 이웃들이 각자의 가게를 닫고 모여들고 있었다. 북해정에서 섣달그믐의 풍습인 해 넘기기 우동을 먹은 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동료들과 그 가족이 모여 가까운 신사(神社)에 그해의 첫 참배를 가는 것이 5, 6년 전부터의 관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 생선가게 부부가 생선회를 가득 담은 큰 접시를 양손에 들고 들어온 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평상시의 동료 30여명이 술이랑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어 가게안의 분위기는 들떠 있었다.

2번 테이블의 유래를 그들도 알고 있다.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아마 금년에도 빈 채로 신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섣달 그믐날 10시 예약석'은 비워둔 채 비좁은 자리에 전원이 조금씩 몸을 좁혀 앉아 늦게 오는 동료를 맞이했다.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서로 가져온 요리를 손을 뻗히는 사람, 카운터 안에 들어가 돕고 있는 사람, 멋대로 냉장고를 열고 뭔가 꺼내고 있는 사람 등으로 떠들썩하다.

바겐세일 이야기, 해수욕장에서의 에피소드, 손자가 태어난 이야기 등, 번잡함이 절정에 달한 10시 반이 지났을 때, 입구의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몇 사람인가의 시선이 입구로 향하며 동시에 그들은 이야기를 멈추었다.
오버를 손에 든 정장 슈트차림의 두 사람의 청년이 들어왔다.

다시 얘기가 이어 지고 시끄러워졌다. 여주인이 죄송하다는 듯한 얼굴로 " 공교롭게 만원이어서" 라며 거절하려고 했을 때 화복(일본 옷) 차림의 부인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들어와서 두 청년 사이에 섰다.

가게 안에 있는 모두가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인다. 화복을 입은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의 얼굴색이 변했다.
십수 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 젖히고, 그 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의 세 사람과 겹쳐진다.
카운터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과,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저... 저... 여보!"
하고 당황해 하고 있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그믐날 밤, 모자 셋이서 일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금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교오도(東都)의 대학병원에 소아과의 병아리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삿포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도 들를 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오도의 은행에 다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

지 인생가운데에서 최고의 사치스러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그믐날 어머님과 셋이서 삿포로의 북해정을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여주인과 주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넘쳐흘렀다.

입구에 가까운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야채가게 주인이, 우동을 입에 머금은 채 있다가 그대로 꿀꺽하고 삼키며 일어나,

"여봐요. 여주인 아줌마! 뭐하고 있어요! 십년간 이 날을 위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섣달 그믐날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안내해요. 안내를!"

야채가게 주인의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여주인은,

"잘 오셨어요... 자 어서요... 여보! 2번 테이블 우동 3인분!"
무뚝뚝한 얼굴을 눈물로 적신 주인,
"네엣! 우동 3인분!"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터지는 가게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갓 내린 눈에 반사되어 창문의 빛에 비친 <북해정> 이라고 쓰인 옥호막이 한 발 앞서 불어재치는 정월의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오차인 전도사 / 유치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유치부 어린이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키워주시길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선생님들 위해서도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팽정은 전도사 / 유년부

김성국 목사님의 교육 목표를 따라 우리 유년부가 올 한해, 축복이 흐르는 유년부가 되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겠습니다.

김재형 전도사 / 초등부

새로 맡은 부서에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친구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박성권 전도사 / 중등부

하나님께서 중등부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이 말씀위에 세워지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로 힘쓰겠습니다.

명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Reprocessing Machine
최신살균세척기

Procedure Room
내시경 검사실

Exam Room
진·료·실

Recovery Room
회·복·실

Consult Room
상·담·실

Waiting Room
대·기·실

명준모 위장내과에서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시설을 모두 완비!
한곳에서 두가지 검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간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FLUSHING, N.Y.
PERMIT NO. 1126

월간 아가페 2014년 신년호 제379호 발행인 | 김성국 목사 www.kapcq.org tel. 718 886 4040, 4340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원로목사 장영춘 / 담임목사 김성국
143 - 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 4040, 4340
FAX: 718 358 7789
EMAIL: agape@kapcq.org
www.kapcq.org